부부조화 측정 도구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김 현 리

부부조화 측정 도구 개발

지도 김 의 숙 교수

이 논문을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0년 6월 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학과

김 현 리

김현리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년 6월 일

감사의 글

간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저를 더욱 인간에 대한 겸허함과 사랑을 갖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기에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훌륭한 배움의 터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수학하게 됨은 저에게 더없는 행운이었습니다.

논문의 주제를 정하고 마무리하기까지 언제나 명철함과 파안대소하시는 대범하신 모습으로 저에게 늘 큰 산처럼 우뚝 서서 길을 인도해 주신 김의숙 지도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유로움과 단아하신 모습으로 편안하게 사고할 수 있는 자세를 배우게 해주신 김소야자 교수님,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움을 느끼며 좀 더 폭 넓은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신 유일영 교수님, 언제나 연구실을 개방하시고 정성이 담긴 자료를 주시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주형 교수님, 연구주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으로 살아있는 연구가 되어야 함을 자상하게 지도해주신 이동원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학위과정 동안 즐겁고 벅찬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잊지 않으시고 가까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선택과 도전에 이르기까지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애쓰신 유지수 교수님의 사랑임을 잊지 않으렵니다. 학위과정 동안 평생지기의 학우들을 만나고 특히 졸업시험을 준비하며 인간적이고 학문적인 교류를 가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오늘이 있기까지 학부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친자식보다 더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최세진 교수님, 이규순 원장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낳으시고 평생토록 자식을 위해 헌신하신 어머님의 끝없으신 사랑에 고개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남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해준 든든한 남편, 언니같이 늘 보살피는 정성을 보여준 동생, 듬직한 우리 조카 현석, 사랑스런 어린 세 딸 희환, 영환, 화원이의 존재가 저에게 더욱 벅찬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끝으로 학위과정 동안 배려해주신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은사님들께도 감사드리며 논문진행을 도와준 학생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늘 준비하는 모습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7월 14일

연구자 김 현 리 올림

차 례

감사의 글 i
목차 ii
표 및 그림 목차 iii
국문요약 iv
Ⅰ.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1
B. 연구목적 4
Ⅱ.문헌고찰 5
A. 선행연구. 5
Ⅲ. 연구방법 8
A. 연구설계 8
B. 연구의 진행과정 8
Ⅳ. 연구결과 10
A. 문헌고찰을 통한 부부조화 개념의 속성 도출 10
1. 문헌고찰 방법 10
2. 문헌고찰 결과 10
B. 부부면접을 통한 부부조화 개념의 속성 확인 19
1. 대상자 선정 19
2. 면담진행 19
3. 면담결과 분석 20
C. 부부조화 개념의 통합 속성 확인 27
D .부부조화 측정을 위한 문항 개발 28
1.도구의 형태결정 28
E. 현장적용을 통한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29
1. 자료수집 절차 및 방법 29
2. 부부조화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30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0
2)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30
3. 부부조화개념의 중요도 32
4. 부부조화점수의 분포 34
F. 부부조화 측정도구의 형태 결정 39
Ⅵ. 논의 42

A. 부부조화 영역별 부부조화 수준 비교 42
B. 행위자 중심으로 분류한 부부조화 수준의 비교 45
C. 한국에서의 부부조화 49
D. 부부조화도구의 간호학에의 적용 51
1. 개발된 부부조화 도구의 사용 51
Ⅴ. 결론 및 제언 53
A. 결론 53
B. 제언 55
참고문헌 56
영문초록 60
부록 63

표차례

표 1. 부부면담자료에서 부부조화 속성 22
표 2. 연구자와 면담자의 영역에 대한 명명 비교 27
표 3. 문헌과 면담을 통한 부부조화 속성 결정 28
표 4. 부부조화 세부 영역별 신뢰도 계수 31
표 5. 부부조화 요인 분석결과 33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부조화 수준 비교 36
표 7. 남녀 별 부부조화 점수의 세영역 비교 37
표 8. 대상자 분류별 부부조화 점수 비교 37
표 9. 10개 영역별 남녀의 부부조화 수준 비교 38
표 10. 개발된 부부조화 측정 도구 40
표 11. 부부조화 영역별 남녀 부부조화 수준 비교 43
표 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위자 중심 영역별 부부조화 수준 비교 46

그림차례

그림 1. 연구의 진행과정 9
그림 2. 부부관련 개념들의 Mapping 16
그림 3. 문헌상 부부조화 개념 속성 18
그림 4. 성별에 따른 부부조화 점수의 비교 34
그림 5. 개별부부의 부부조화 점수의 비교 35

국문요약

부부조화 측정도구 개발

본 연구는 간호가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이해에 바탕을 둔 Human-practice science로 본질을 찾아야 하며 인간 삶의 기본이 되는 가족단위 속에서 중심이 되는 부부관계의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가족 중심의 간호활동이 효과적이며,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하면서 가족을 유지하는 힘이 좋은 부부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좋은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부부조화의 속성을 찾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간호현장에서 부부를 간호대상으로 할 때 부부의 건강증진을 위한 하나의 지표로서 부부조화를 측정하여 간호활동에 활용하고자 본 연구가 시도되었다.

연구는 네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개념개발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김혜숙 과 Schwartz & Bacott, D. 의 Hybrid method(1993)의 과정을 일부 활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문헌고찰을 통해 부부관계를 다룬 개념들을 정리하여 좋은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개념들의 속성을 찾았는데, 개념들이 유사함으로 인해 서로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유사개념들을 conceptual mapping 한 결과 이들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로 직업, 수입, 사회경제적 수준, 교육, 연령, 자녀, 가족주기, 성별, 결혼형태였고, 매개변수들로는 가족가치관, 자아인식수준, 성생활, 우애성, 수입의존도, 역할수행이었다.

이들의 개념들간의 유사성을 정리한 결과 좋은 부부관계 개념의 속성은 대화, 공유, 통합, 부부관계만족, 역할수행, 적응, 헌신, 애정, 의사결정, 존경, 가치관, 갈등, 부모만족으로 총 13가지의 속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좋은 부부관계의 속성과 기존에 사용되는 부부조화 속성간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부부조화 영역을 도출하였는데 일체성, 기대인식, 배려, 존중, 평등, 주관적 인식의 5가지 속성을 부부조화개념의 틀로 도출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현장작업의 단계로 부부를 대상으로 심

층면담을 실시하였는데 1997년 12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고 추천되는 부부 7쌍과 현재 갈등상태로 부부불화가 있는 1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반대사례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면담자료에서 의미있는 자료의 차이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면담자료에서 도출된 의미있는 부부조화 개념들은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면담자료에서 도출된 속성들은 인내, 인격적 대우, 가치추구의 유사성, 갈등대처, 가치인정, 적응, 헌신, 긍정적 생활태도,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 솔직한 대화, 배우자에 대한 배려, 애정표현으로 총 12개가 확인되었다. 연구자에 의한 개념의 분류와 속성확인 과정에서 간주관성을 확립하기 위해 면담자들에 의한 Pile sorting작업을 시도하였는데 개념의 분류는 차이가 있었으나 속성의 명명은 연구자와 유사한 점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단계는 부부조화 도구의 문항개발 단계로 부부면담에서 도출된 개념들과 문헌에서 확인된 개념들을 중심으로 문항을 확정하여 총 76문항을 개발하였다. 문항개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타당도 확인 작업을 거치고, 부부를 대상으로 Pilot test를 거쳐 의미가 같거나 중복되고 모호한 문항을 수정하고 삭제하여 64개 문항을 확정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부부 총 482명(242쌍)를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이용한 양적 재확인과정을 거쳤는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 .9547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고 구성타당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Eigen value 1.0이상인 총 14개 요인이 산출되고 전체 60%를 설명하는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Varimax rotation 결과 14개 요인 중 12개 영역에 개념이 분포하였고 11,12영역은 각각 1개씩의 단일문항으로 한 영역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부부조화를 나타내는 요인들의 영역은 총 12개로 '무책임' 1개 영역과 단일 문항으로 이루어진 2개의 영역을 제외하고 9개의 영역은 함께함, 이해, 존중, 배려, 긍정적 생활태도, 애정의 표현, 적극적 의사표현, 자녀양육, 적응으로 명명하였다.

대상자들의 부부조화 수준은 남녀의 차이가 4점정도 차이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통계적 차이가 없었고, 남자, 여자, 전체, 개별부부의 조화 점수의 분포도는 유사한 형태를 보였고 평균점은 235점이고 최하 157점에서 최고 314점의 분포를 나타냈다.

개발된 부부조화 도구의 특징은 '자기인식'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최근 부부관계 연구에서 나타나는 인지변수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부분인데 부부조화 도구에서는 이를 도구의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 하겠다. 그리고 외국 도구와 다른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배려' 영역은 속성은 엄밀하게 보면 자아의식과 관련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부부조화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는데, 이 도구를 지역사회 간호현장에서 부부건강증진을 위한 간호활동의 지침으로 또는 부부상담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기존의 질병예방과 문제중심의 간호가 아닌 건강과 함께 하는 긍정적인 건강증진 촉진자로서 간호사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부각시키면서 아울러 스스로 건강할 수 있는 계기를 부부각자와 모두에게 간호사가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Ⅰ.서론

A. 연구의 필요성

최근의 우리나라의 건강관리 방향은 단순히 한 시점의 건강문제 중심이 아닌 전 생애를 포괄하는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가족기능의 약화를 보강하는 보호차원의 체계구축까지 생애주기별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지역사회 단위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간호접근이 필수적 발전방향임을 알게 한다. 가족은 간호의 대상이며 서비스의 단위로서 간호학에서도 중요한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가족은 사회의 변천에 따라 외형적으로는 소수인화현상, 핵가족화 현상 그리고 고립화 현상을 띠고 기능적으로는 심리적 안정을 위한 휴식의 기능과 같이 심리적인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은 부자중심에서 부부중심 가족으로 변화이고 부부가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할 때 가족의 해체에 까지 이르게 되는 원인임을 지적한다(이광규, 1996). 이렇듯 현대 가족이 수평구조의 변화가 이루어 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광규(1994)가 강조한 과거 우리나라의 전통가족은 남편을 중심으로 한 수직구조와 부인을 중심으로 한 수평구조의 균형과 조화속에서 가족이 유지되어 왔음을 상기해보면 우리의 삶이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함을 알게 하며 이러한 한국적 가족의 이해속에서 가족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한국에서의 건강관은 가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변영순,1988; 방매륜, 1993; 양순옥, 1989; 김애경, 1994) 건강개념 또한 건강증진이 강조되는 변화하는 특징들을 볼 때 간호에서의 접근 또한 가족중심적 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가족이 사회의 기본단위이고 개인의 건강신념, 가치등이 형성되는데 기초적인 영향을 주고 개인과 사회의 완충지대로서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인 방어를 가능케하는 역할을 하는 가족에 대한 이해는 특히 지역사회를 단위로 한 간호현장에서는 필수적이고 가족중심적인 간호의 접근이 필요함을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족의 이해에 있어 가족의 성립과 해체가 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게

되므로, 정상적인 가족관계의 유지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는 결국, 인위적인 가족관계의 해체가 지양될 수 있는 핵심 즉 힘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국의 지난 30년간 이혼율은 결혼 100에 대해 3.1%(1960)에서 16.8%(1995)로 증가되었고 결혼초기의 이혼은 감소추세인 반면 결혼기간이 15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율이 증가되고 있어 가족의 불안정한 상태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다. 더구나 과거에는 이혼사유의 50%정도가 해당되던 경제적 이유가 이제는 부부불화가 이혼사유의 첫째원인으로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통계청, 1997) 가족의 결속과 유지가 부부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부관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부분으로 부각되는데,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의 연구에서도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의 대부분이 가족의 일구성원으로서 부부를 접근하고 결혼만족, 결혼적응, 결혼행복, 결혼의 질, 건강한 결혼의 개념을 중심으로 부부관계를 확인하고 있었고, 좋은 부부관계를 표현하는 부부조화개념의 접근도 이루어 지고 있었다. 최근에는 부부관계를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는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지속적이며 개인의 삶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포괄적 관계라고 규정하고 만족도와 질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이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좀 더 근본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결혼의 개념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가족의 형성으로부터 시작되는 부부관계가 부부 개인에게 있어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불행을 참으며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의지에 의해 부부관계를 영위해 나가는 주체로서의 생활이 이상적인 부부라고 가정하고, 이러한 부부생활을 규정하는 것이 부부관계의 정확한 이해를 가능케 하리라고 생각한다. 현재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이 학자들에 의해 이상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평등성과 상호성을 찾아보기 어려울 지라도 인본주의적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개개인이 표현하는 부부관계 현주소와 이상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부부관계는 가족이 기본기능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며 Bowerman & Dobash(1974)는 부부관계를 가족 상호작용의 가장 중요한 주요요인으로 간주하였다. 결혼하기 전까지 20여 년 이상 익히고 자라온 자신의 인성, 태도, 습관, 가치관뿐만 아니라 자신 가정의 관습이나 가풍 등이 상대방의

그것과 조정을 거쳐 하나로 표현되어야 하는 필연적인 조화와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관계라고 하였다.(김모임외, 1996)

좋은 부부관계를 부부간에 서로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부부조화도로서 나타낼 수 있고 부부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결혼 후 결혼 적응이나 결혼만족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었고(Burke et. al. 1974; Levinger, 1964, Tharp, 1963; Winch, 1955), Schutz(1960)는 인간관계 욕구영역을 상호관련 욕구, 정복욕구, 애정욕구의 3영역으로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부조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인 FIRO-B(Fundamental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 Behavior)를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김의숙(1978)은 건강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바 있다. 김의숙(1996)은 부부조화도를 부부가 얼마나 서로 어울리는 만남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서로 어울린다는 것을 무엇에 의거하여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주관심사가 된다고 했다. 부부조화도란 두 사람간의 욕구상태를 사정하여 이들 욕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높아질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부부간의 조화란 둘이 비슷하거나 반대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의 영역에 따라 어느 것은 비슷해야 하거나 또 다른 것은 반대여야 한다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결혼문제의 원인으로 대두되는 부부간의 상이성을 문제 자체로 보지 않고 그 상이성을 조정해 나가는 방법을 문제로 보고, 조화된 결혼생활을 위하여 결혼초기의 적응방식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Notarius & Markman 1993)

그러나 부부관계를 규명하려는 노력들은 대부분 외국의 도구를 사용하고, 부부의 관계임에도 부부중 한 사람을 통해 관계를 파악하고 있었고, 도구의 개발 역시 부부가 한 단위가 아닌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기혼자를 통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거나, 간혹 부부 두 사람의 면담을 시도한 연구는 있었는데 면담 자료의 제시에 그치고 있어 현상의 단순한 이해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었고, 부부관계의 현상태를 가늠하는 지표는 외국의 것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존에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개념들이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을 근간으로 하는 일반적인 인간관계로의 단편적인 접근을 해서 일반적인 인간관계만이 아닌 부부가 갖게되는 독특한 관계를 나타내는데 제한적이었고, 외국의 내용을

번역 또는 번안하여 사용하여 문화적 차이점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해 현상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부족했다고 생각된다. 간호의 대상이 개인, 가족, 지역사회 단위가 되며, 기능중심으로의 건강개념 변화는 특히 가족이 지역사회 간호영역에서 중요한 접근단위가 되고, 가족에 대한 간호를 제공함에 있어 가족 전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못함은 핵심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가족관계 유지의 구심점인 부부관계에 초점을 맞춘 즉, 좋은 부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결혼이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갖고 부부관계가 평범한 인간관계가 아닌 가장 친밀성이 강조되는 두 사람이 이루어 나가는 생활이므로, 부부가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속성을 찾고 부부조화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실제 간호현장에서 부부를 간호대상으로하여 부부조화를 측정하고 부부의 건강증진을 위한 하나의 지표로서 부부조화도구를 활용하고자 한다.

B.연구목적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실제에 맞는 한국의 부부조화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한다.

1. 구체적 목적

1) 조화로운 부부관계의 속성을 확인한다.
2) 부부조화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한다.
3)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한다.

Ⅱ.문헌고찰

A. 선행연구.

부부관계를 나타내는 다양한 개념들중 가장 보편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결혼만족도의 개념은 그 측정에 대한 최초의 시도가 Hamilton(1929)에 의해 행해졌고 Terman(1938), Burgess 와 Cottrell(1939)에 의해 연구기반이 확립되었고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 졌음을 보고하고 있다(김모임 외, 1996 재인용). '결혼만족' 개념은 단일차원으로 접근하거나(Schumn, 1981) 다차원 영역(Snyder, 1979 ; Roach, 1981)으로 접근하는 두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도구의 타당화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 결혼만족을 하위영역으로 하는 '결혼적응' 개념이 Spanier(1976)에 의해 2인 적응척도(Dyadic Adjustment Scale : DAS)로 제시되었다. 하위영역은 부부간의 일치, 만족, 응집성, 애정표현 등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척도는 전반적인 결혼 적응도를 평가하고 부적응 집단을 변별하는데 그 효용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다차원 척도의 대표적인 Spanier(1976)의 DAS는 현존 결혼 적응척도 중 가장 바람직한 척도로 평가되고 많이 사용되지만 척도를 재검증 한 결과 모든 변인이 한 요인으로 묶이거나 원래의 하위영역으로 묶이지만 문항들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보완작업을 Snyder(1983)가 시도하였으나, 하위척도간 상관이 높아 척도의 차원이 혼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여 차원간의 독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영주(1986)에 의해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개발당시의 영역과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 부부를 대상으로 한계점를 드러내고 있다.

결혼의 질은 보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결혼만족, 행복, 적응, 의사소통, 통합 등의 상호관련성이 높은 제 개념들을 모두 포괄하고 일반적으로 질 개념은 주관적 평가로 측정되거나(Lewis & Spanier 1979) 혹은 주관적 내지 객관적 평가로 측정되고(Olson et al 1983),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현실에 대한 객관적 지표 못지 않게 주관적인 평가도 역시 중요함을 주장한다(이기영, 1984; 이미

숙, 1990). 이와같이 결혼의 질 개념은 만족, 행복, 적응 등의 개념을 기본요소로 포괄하는 보다 상위의 복합적인 개념으로 규정되고 있다. Cuber & Harroff(1965)는 부부가 갖는 질적관계의 유형을 분류하면서 결혼이 지속된다는 사실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만족하다고 경험하는가는 혼동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결혼은 습관, 전통, 실제적 편리함이나 준엄한 사회규제 때문에도 자주 지속된다고 결론지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최신덕, 1986;이동원,1988; 권희완,1992) 결혼의 질을 나타내는 요소들은 각자의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로서의 생활태도나 주관적 느낌, 생활방식들을 종합하여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에서 한편의 일방적인 표현으로 그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결혼에 관해서 건강한 결혼이라는 용어가 국내에서는 송정아(1995)의 연구에서 사용되었고 건강한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관련 변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족건강척도와 활성적 결혼관계 척도를 참고로 결혼관계 건강척도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는데 외국의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결론적으로 결혼한 부부관계의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결혼만족, 결혼의 질, 결혼 적응, 건강한 결혼)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표현을 중시하였고 점차 만족, 적응, 결혼의 질을 파악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었고, 한 시점을 설명하고자 한 점, 객관적 수준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려고 객관적 내용들의 검증을 추가하고 있는 현상이 있었으나, 각각의 개념이 필연적으로 유사성에 의해 상관성이 나타나거나 한 개념이 다른 개념의 일 부분으로 포함되어 개념이 혼재될 수 밖에 없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결혼만족도 측정도구에 대해 정현숙(1997)은 세 가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대부분이 이론적 틀에 기반을 두지 않고 이루어진 관계로 연구결과의 불일치를 나타냈고, 둘째, 용어의 사용 시 결혼만족도와 결혼적응과 같이 비슷한 개념들이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 분석단위가 개인이나 부부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셋째, 결혼만족도의 하위요인을 규정하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결혼만족도의 분석단위가 개인에 머무르고 부부단위로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문헌에서 보면 많은 연구들에서의 특징은 결혼만족도를 측정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였고, 기본

적으로 외국에서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중에서 일부가 타당도와 신뢰도가 측정된 도구들로서 모두를 신뢰하고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또한 수정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한 기존의 도구가 갖고 있는 영역에서 시가관계나 자녀양육과 관한 영역이 추가되거나 수정되어지는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한 결혼만족도 측정에 고려하여야 함에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개념들이 결혼전반에 관한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반면, 좀 더 부부관계에 국한한 부부조화개념이 있다. 좋은 부부관계를 부부간에 서로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부부조화도로서 나타낼 수 있고 부부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결혼 후 결혼 적응이나 결혼만족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었고 (Burke et. al. 1974; Levinger, 1964, Tharp, 1963; Winch, 1955), Schutz(1960)는 인간관계 욕구영역을 상호관련 욕구, 정복욕구, 애정욕구의 3영역으로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부조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인 FIRO-B(Fundamental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 Behavior)를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김의숙(1978)은 건강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바 있다. 김의숙(1996)은 부부조화도를 부부가 얼마나 서로 어울리는 만남인가를 나타내는 것 으로서 서로 어울린다는 것을 무엇에 의거하여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주관심사가 된다고 주장하고 부부조화의 영역으로 애정, 교류, 깊이있는 대화, 지도력을 들고 있다. 부부조화도란 두 사람간의 욕구상태를 사정하여 이들 욕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높아질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부부간의 조화란 둘이 비슷하거나 반대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의 영역에 따라 어느 것은 비슷해야 하거나 또 다른 것은 반대여야 한다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부부조화는 기존의 부부관계 개념들과는 달리 부부관계를 서로의 욕구를 표현과 행동 둘을 합한 전체를 비교 분석하여 조화의 정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좀더 심층적인 부부관계 접근을 통해 부부조화를 나타낼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부부관계를 이해하고 좀 더 나은 관계형성을 위한 방향을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부부대상의 건강증진적 간호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Ⅲ.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우리나라 부부의 조화도를 알아내기 위해 부부조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한국적 부부조화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개념의 속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헌고찰을 통해 conceptual mapping을 실시하고, 현장 면접에서 속성을 찾아 두가지의 속성을 비교하고 합하여 , 가척도를 제작하고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지 조사법과 질문지 면접법을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B. 연구의 진행과정

연구과정은 5단계로 이루어 졌고 특정 개념을 도출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측정에 이르기 까지 양적, 질적 방법론이 가질수 있는 제한점을 최소화 하고자 간호학에서 개념의 도출과정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Hybrid method의 과정을 일부 활용하였고 실증연구를 통해 개념을 확인해보는 conceptual mapping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연구자의 주관에 빠질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면접자료를 이용한 개념도출 과정에서도 연구자와 면담자간의 간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담자를 대상으로 Pile sorting 작업을 거쳐 속성에 대한 의미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부부조화 측정을 위한 척도 제작과정은 면담자료를 근간으로 문헌상 나타난 자료를 모두 참조하여 가척도를 제작하여 전문가와 일반부부를 대상으로 타당화 작업을 거쳤고 문항을 세련화하였다.

최종적으로 양적재확인 과정은 질문지법을 이용하여 부부 242쌍(482명) 대상으로 실시하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그림 1)

그림 1. 연구의 진행과정

문헌고찰을 통한 부부조화 개념의 속성 도출	결혼만족, 결혼적응, 결혼의 질, 건강한 결혼에 관한 문헌고찰(1997.12-1998.12) ==> conceptual mapping 실시 ==> 부부조화의 속성 도출

↓

부부면접을 통한 부부조화 개념의 속성 확인(Hybrid method 활용)	부부 개별 및 동시 면담 실시 :사례 7쌍(총 24회) 반대사례 1쌍 (총 3회) (1997.12- 1999. 10) ==> 부부조화 속성확인 ==> 면담자에 의한 Pile sorting 실시 ==> 부부조화 속성 도출

↓

문헌고찰과 현장면담 비교
==> 부부조화 개념의 속성 확인

↓

부부조화 측정을 위한 문항개발	* 가척도 제작(76문항) * 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 검증 Pilot test : 최종 64개 문항의 부부조화 측정도구 결정

↓

현장적용을 통한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부부 241쌍 (482명); 질문지 조사법 196명(98쌍) 질문지 면접법 286명(143쌍) 구성타당도와 내적일관성 검증

Ⅳ. 연구결과

A. 문헌고찰을 통한 부부조화 개념의 속성 도출

1. 문헌고찰 방법

부부조화의 속성을 찾기 위해 부부관계와 결혼에 관한 국내 및 국외의 문헌을 1970년부터 1999년도 까지 200여편에 이르는 가정학,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간호학 분야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각종 학회지와 대학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과 과학위논문, 저서를 고찰하였다. 부부관계는 주로 결혼만족, 결혼적응, 결혼의 질, 건강한 결혼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었는데 부부관계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기틀, 이론적 개념을 실제로 적용한 임상연구와 관심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도구들의 형태와 내용 그리고 속성들을 파악하였다.

2. 문헌고찰 결과

결혼만족도의 개념은 두가지로 정의 되어 지는데, 첫째는 "한 개인이 가지는 기대와 그 사람이 실제로 받는 보상 사이의 일치정도"로 이 정의에 따르면 결혼만족도는 "개인이 결혼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결혼의 결과사이의 일치도'라고 정의된다(Lenthall, 1977). 두 번째 만족의 정의는 "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진 즐거움과 즐겁지 않음, 행복 과 불행, 충족감 과 불만의 비교현상" 이라는 견해이다(Burr, 1977). 이 주관적 태도로서의 결혼만족도 개념이 기대와 보상간의 일치도라는 개념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더 널리 사용되고 있음(최규련, 1988)을 밝히고 있다.

결혼만족도 측정도구는 단일차원의 척도와 다차원척도로 구분 할 수 있고 각각은 그 사용 목적에서 차이를 갖는다. 단일차원의 경우 전반적인 관계적 만족을 측정하고 있었고 다차원의 척도의 경우 역할수행, 부모로서의 만족, 성생활, 의사결정, 부부만족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는 김혜선(1982)이 한국은 부부가 표본으로 되는 경향은 증가하였으나 아직 표본의 수가 적고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주의가 미흡하였고, 총체적 개념인 결혼 만족도가 다영역적 특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단극적인 파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특별히 애정, 성, 의사소통이 뚜렸한 정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여 현대의 부부가 애정을 중심으로 부부관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결혼만족도를 영역별로 분리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음을 아울러 주장하였다.

결혼만족연구를 고찰한 이미숙(1990)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후반에는 결혼만족과의 관련개념 (결혼적응, 결혼행복, 결혼의 질) 중에서 보다 기초적이며 공통적인 개념으로 결혼만족 개념이 선호되고 있었고, 1980년대의 연구에서는 주로 사회인구학적인 객관적 변수들과의 관계와 주관적 변수들로는 성역할 태도, 의사소통, 여가유형, 부인의 성격유형, 그리고 양육태도 및 아동학대 등에 대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위의 변수를 포함하여 성역할 정체감, 자아개념, 자기노출, 가족가치관, 결혼안정성 등의 변수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들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결혼만족도에 관련되는 변인들은 연령, 학력, 직업, 소득수준, 부부간 의사소통, 성관련 변수, 역할관련 변수, 자녀관련변수등이 확인되었으나(안동선, 1982; 이미숙, 1985; 임정빈과 정혜정 ,1986 ;박찬미, 1986; 최연실과 옥선화, 1987; 이정연, 1987; 최경숙, 1989; 기승주, 1988; 왕석순, 1989; 이창운, 1990; 김해영, 1995; 김칠환, 1991; 민현숙, 1993) 일부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결과들이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박찬미, 1986). 그러나 자녀의 특성과 남편의 성역할 태도, 친정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이 지적되었던(Rollins & Galligan 1978)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우리나라 정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외의 연구에서는 결혼만족에 영향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들(Rowan, 1995; Lewis, 1993; Williams, 1993; Fraenkel, 1994)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고 질병, 직업만족, 직업스트레스, 정신적 증세, 감정이입등이 영향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결혼만족에 영향요인이 점차 인지변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나타내고 있다.

다차원 척도로 Snyder(1979)에 의해 개발된 결혼만족도 검사는 최근(1997)에 개정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를 개발하고(권정혜와 채규만, 1998)를 표준화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Roach et al (1981) 등이 개발한 측정도구에서는 결혼만족을 사회심리적 동질감, 합리적 부부관계, 전반적 반족, 결혼 불만족영역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도구의 특징은 개인의 결혼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단일요인 척도로 구성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고, 결혼만족도를 관련된 하위영역별로가 아닌 부부관계에 대한 호감도라는 하나의 총체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고 보고 되었는데(박미령, 1987), 이 도구는 한국에서 타당화 작업시에 제작당시와는 달리 6개 하위요인이 발견되었고, 신뢰도 계수 산출시는 단일요인으로 처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적용에 문제점을 내포한다. Schumm(1989)과 송정아는 기존의 Schumm(1981)이 개발한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을 개정하였는데, 결혼의 세 영역에 대한 개인의 인지도로 전반적인 결혼에 관한 인지, 배우자에 관한 인지,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지, 자기자신에 대한 인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도구는 전반적인 결혼에 관한 만족을 알 수 있는 단일차원의 도구로 단순화와 수량화의 장점은 있으나 결혼생활의 복잡한 현상을 평가하고 연구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이렇듯 결혼만족도 측정에는 이 분야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용어의 모호성과 측정도구의 문제점이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이다.

결혼 적응이라는 용어는 결혼의 질을 측정하는 하나의 개념으로서, 결혼만족이나 결혼행복이라는 용어와 분명하게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지 않고 이 개념들 또한 결혼의 질을 나타내는 개념이기도 하다. 이 결혼의 질은 결혼한 부부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라고 정의 할 수 있고(Lewis & Spanier, 1979), 이때의 평가는 결혼의 상호작용과 결혼의 기능상의 수많은 특징을 반영하는 하나의 연속체로 높은 결혼의 질은 결혼관계에서 높은 적응을 보이고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고, 높은 수준의 결혼행복도, 통합, 높은 결혼만족도와 상관된다고 한다(Spanier & Lewis, 1980). 또한 결혼적응은 각 배우자가 결혼관계에서 순응(Adaptation) 하고 조절

(Accomodation)하는 과정을 지칭하는데 (Adams, 1980), 한 배우자는 광범위한 적응을 해야 하는 결혼관계에도 만족할 수 있으며 반대로 약간의 적응만 하면 되는데도 여전히 그 관계에 불만족해 할 수 있다(Gullotta, 1986)는 점에서 만족과 적응은 구별되는 개념임을 밝히고 있다(이미숙, 1990).

Burr 등(1979)에 의하면 Burgess는 잘 적응된 결혼이란 부부가 결혼생활의 주된 문제들에 관해 의견일치를 보아서 조화를 이룬 결혼이라고 하였고, 적응의 개념은 문화적 기준에 근거한 행동에 동조하도록 영향을 받으므로 발달주의와 함께 규범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결혼적응을 측정하는 도구 중 가장 보편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도구는 Spanier(1976)의 2인 적응척도(Dyadic Adjustment Scale : DAS)로 우리나라에서 부부의 적응에 관한 연구로는 Spanier(1976)의 Marital adjustment scale을 번역하고 수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신성자,1981) 의사소통과 역할수행, 기대, 성 역할 태도 등의 인지적 변수와 부부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을 중심으로 그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최근까지 적응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결혼적응에 관한 논문을 1968-1990년까지 분석한 연구(이미숙, 1990)에서는 총 20편이 분석대상이 되었는데 10편이 결혼적응척도를 통해 결혼만족을 하위요소로 측정하고 있었고, 나머지 10편도 결혼만족과 행복을 전체 결혼적응 가운데 포함된 하위요소로 측정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결혼적응의 개념을 결혼만족, 결혼행복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또한 결혼적응을 하나의 과정으로 전제하여 가족생활주기와 연계하여 고찰할 것을 주장하고(이행옥, 1989), 핵가족 형태인 제1주기(결혼 후 아이가 없는 상태)의 적응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김정원 1987)도 있었다.

이후에도 적응에 관한 논문은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주부의 취업유무, 부모기전이, 부부응집, 성역할 태도, 역할수행, 자아분화, 자기개방, 의사소통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었다.(전길량, 1988; 강은령, 1989; 고선주, 1993; 김수연, 1993; 고선주 1997). 또한 적응을 위해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중재방법까지 시도(오윤자, 1994; 송정아, 1996)되고 있다. 결혼적응의 정도는 역할수행구조와 의사결정 형태가 공동형,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 결혼전

교제기간이 길 때 (박숙경, 1996), 성생활 만족도가 높을때(김효현, 1996) 높은 것으로 가족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정덕 외 2인(1992)의 우리나라 중산층 핵가족의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부부간 의사소통, 여가활동, 성생활, 친족관계를 중심으로 부부관계의 양상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여가활동의 공유를 추구하고 성생활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강조하며 올바른 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시가관계 중심에서 친가와의 관계 형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주시하였다. 이는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에서도 친정관계의 고려가 강조(이미숙, 1985)되었던 지적과 함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이나 적응, 질에 있어 영향요인들이 변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이동원(1988)은 결혼의 질을 대화, 통합, 만족도, 적응, 갈등의 다섯가지 하위개념으로 나타내었다. "만족도"는 결혼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애정, 지위, 서비스, 돈이나 물질적 자원, 자녀 및 기타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결혼 이전의 기대에 비한 현재의 만족도 등을 포함하였고, "갈등" 이란 부부간에 상충되는 욕구나 목표 및 기대의 불일치로 경제, 애정, 성, 역할 및 기타 부부사이의 갈등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측면의 갈등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대화"란 상호간에 지식, 정보, 의견 및 감정 등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였고, "통합"은 부부가 함께 상대방에게 맞추어 가는 과정으로 즉, 가족의 목적이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합의에 의해서 두사람을 전체 혹은 완전한 부부일체로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부부간의 이해도, 신뢰도 및 결속도로 측정하였다. "적응"이란 부부가 결혼전 환경과 성격간의 차이 및 결혼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부부 상호간의 관계에 의해 해결하고 결혼생활을 통해서 부부간의 차이점을 줄여가는 바람직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하였고 이들 각 하위영역의 합을 결혼의 질로 나타내었다.

송정아(1995)는 건강한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관련 변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족건강척도와 활성적 결혼관계 척도를 참고로 결혼관계 건강척도를 제작하였고, 애정, 대화, 존경, 가치관, 성생활, 문제해결 능력, 함께 하는 시간, 역할수행, 의사결정, 헌신으로 10개 영역으로 제시한바 있다. 이러한 결혼의 건강상

태를 측정하는 척도(송정아, 1995)를 기존 외국의 건강한 가족과 결혼만족 도구를 참조로 하여 제작 사용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일반적 특성보다 심리적 변인의 영향부분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존의 도구를 사용한 연구결과에서 강조하는 범위는 부부에 국한하되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포괄하는 방향을 취해야 하는데 부부관계 측정도구들에서 단일차원의 도구와 다차원도구의 고찰에서 드러난 사실은 다차원 척도의 영역이 연구에서 보면 단일차원의 결혼만족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검증되고 있어 단일차원 척도의 필요성을 일부 학자들이 강조하지만 임상에서의 적용시에 유용한 형태는 역시 다차원 척도임을 증명한다고 보겠다. 다차원 척도에서 확인된 하위영역의 상황을 파악하여 중재시에는 하위영역의 강화를 위한 또 다른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상자 접근에 유용한 것은 다차원 척도일 것으로 판단된다.

실증적 연구들의 결과를 중심으로 CONCEPTUAL MAPPING을 수행한 결과, 결혼만족, 결혼적응, 결혼의 질을 종속변수로 그리고 이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정리하였다.(그림 2) 부부인 남녀의 일반적 특성들 중 직업, 수입, 사회경제적 상태, 거주지, 종교, 성별, 결혼형태, 교육, 연령, 자녀, 가족주기, 가족형태가 영향변수로 , 인지변수로는 수입의존도, 역할, 성역할 정체감, 가족가치관, 가족내 우애성, 의사소통, 자아분화, 자아개념, 자기개방이 확인 되었다. 실증적 자료에 근거한 mapping 과정에서 독립변수의 처리는 첫째, 직업, 수입, 사회경제적 수준, 교육은 사회계층으로 하나의 영역으로, 둘째로 연령, 자녀, 가족주기는 가족주기로 그리고 성별과 결혼형태로 집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다시 재구성하면 성별, 사회경제적 상태, 교육, 종교, 역할주관, 자기표현능력, 그리고 자아발전상태로 정리할 수 있고 이러한 개인의 특성들을 포함한 결과론 적인 부부생활의 실체는 기존의 개념들을 내포하기도 하지만 부부만이 가지는 다른 인간관계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진 통합개념을 확인해 낼 수 있다고 본다.

conceptual mapping의 결과를 보면 왼쪽에 위치한 독립변수들이 오른쪽에 네가지의 종속변수들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의 네가지 개념은 의도적으로 구분하고자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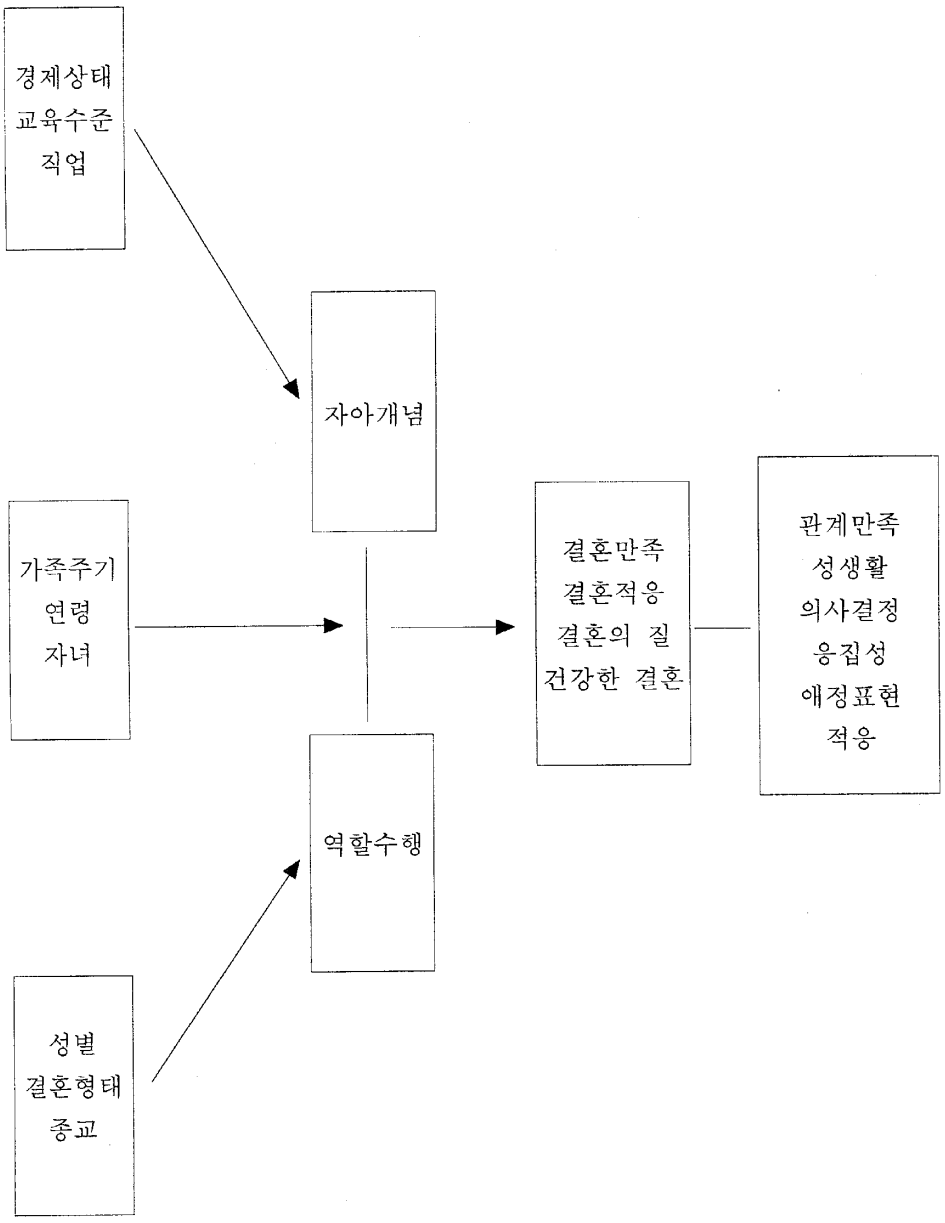


그림 2. 부부관련 개념의 Mapping

는 경우에는 구분을 할 수 는 있겠으나 어느 한가지도 분명한 의미의 구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에 등장한 건강한 결혼개념 역시 제 변수들과의 관계확인이 미흡한 상태이지만 4가지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영역을 보면 서로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일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뚜렷한 구별점을 찾기가 애매한 개념임을 알게 하며 단지 새로운 영역의 추가나 비중의 정도가 다름을 확인 할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부부관계를 나타내는 개념들과 관련된 변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족학자들이 부부관계에 대한 정의와 접근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론적 기틀을 중심으로 척도들의 하부영역들과 내용들을 비교하여 부부조화와 관련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결혼생활의 바람직한 상태로 발전되기 위한 상태나 과정, 주관적 인식의 상당한 부분이 부부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중요한 점이 부부조화상태와 높은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부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개념들의 이론적 체계를 비교 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부부조화로 제시되고 있는 영역들과의 비교고찰을 통해 부부조화의 속성을 규명해낼 수 있다고 본다. 문헌에 나타난 개념과 통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는데 부부만족 또는 관계적 만족, 부모로서의 만족, 가치관, 결혼행복은 개인 스스로가 갖는 인식의 영향이 지대하며 타인의 영향보다는 주관에 의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어 "만족"으로 명명하였다. 의사결정, 안정성, 존경은 결혼생활이 배우자와의 상호협조에 의한 일상의 결정과 진행의 순환이라고 본다면 배우자에 대한 기본태도가 존중과 평등의 기반하에 이루어 질 수 있는 면을 나타내고 있는 영역들로 "존중"으로 정리하였다. 부부응집성, 통합, 대화는 부부가 배우자나 주변을 의식함이 없는 비목적론적이고 비관습론적으로 일상사에서의 부부친화적인 상태로 발전되어 진 것으로 진정으로 부부가 하나가 되고 일체감을 자연스럽게 지향하게 되는 상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일체감"으로 집합할 수 있다. 적응, 헌신, 역할수행은 생활 속에서 배우자에 대해 알게되고 이를 기반으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도 헌신할 수 있는 배우자에 맞추어 가는 과정으로 배우자에 대한 "적응"으로 통합한다. 성생활, 부부간 애정표현, 커뮤니케이션, 함께 하는 시간들은 부부가

공동으로 참여 해야하는 시간, 공간적, 의식적 분야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로 공통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어 "교류"라는 영역으로 집합하였다. 부부관계에 관한 개념들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문헌을 통해 알려진 요인 들을 정리하는데 부부만족도에서 자녀관련 요인은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부부관계와의 관련성은 적지만 기존문헌에서 고려하여야 함을 강조하므로 영역에 포함시키고, 또한 시가관계영역도 우리나라의 가족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외국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으나 실제 연구에서 다루어 졌던 요인이므로 포함되어야 한다. 위의 영역들은 다차원 척도의 전형이라면 단일차원 영역으로 볼 수 있는 행위자 중심의 세가지 영역이 존재한다. 세 영역은 자기자신영역, 배우자영역, 부부 공동의 영역으로 부부조화를 구성하고 이를 구체화 한 것이 다차원 척도의 영역들이다.

실증적 자료의 영역과 이론적 체계에 근거한 영역간에는 실증 문헌이 이론의 토대 하에 이루어진 자료들이었으므로 영역의 내용간에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조작적 개념의 영역이나 내용을 연구자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결혼만족도 측정도구의 하부요인으로 개발당시 제시되었던 영역들과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진 도구들의 내용과 외형적 요인들간에는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외국도구의 사용시에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시도된 노력들로 판단되나 도구개발의 근거가 되는 문화적 배경과 정서가 무시된 측정도구의 사용은 체계적 오류를 범하기 쉬운 문제점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부록 1과 2) 결론적으로 문헌을 통한 부부조화의 속성은 두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행위의 의미중심 분류는 만족, 적응, 존중, 일체감, 교류로 구분되고 이러한 행위의 주체에 따른 분류는 자기자신, 배우자, 공동 영역으로 분류한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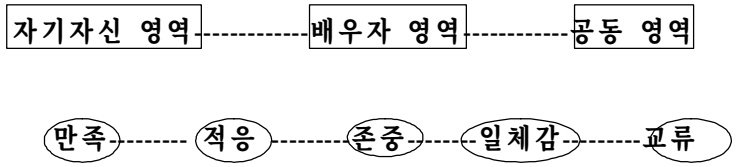


그림 3. 문헌상 부부조화 개념 속성

B..부부면접을 통한 부부조화 개념의 속성 확인

1. 대상자 선정

부부조화의 속성이 확인 될 수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는데 사례의 수 보다는 Data saturation이 될 때까지 사례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여 총 7사례의 부부가 대상이 되었고, 사례의 선정은 연구자 본인이 판단하여 결혼생활이 원만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2쌍과 그 부부가 추천한 2쌍의 부부, 동료교수가 추천한 부부 !쌍, 간호학 전공자로 목회활동을 하는 사모의 추천으로 1쌍, 연구자의 사회활동 중 알게되고 주위로부터 추천된 1쌍의 부부로 결혼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부부 7쌍이 대상이 되었다. 그 후 부부조화의 영역 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반대 사례에 대한 면접도 1쌍을 실시하여 제한된 대상으로부터 얻게되는 위험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 유의표출을 시도한 이유는 부부조화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표본을 확보하여 이론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바람직한 부부관계의 속성들은 물론 미처 확인되지 못한 내용을 찾아내기 위함이었다. 반대사례의 면담결과는 결혼 20년 정도된 40대의 부부로 자신의 의지를 가정이나 배우자, 자녀의 요구에 의해 이혼을 고민하다가 20년간의 사회생활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부로서 삶의 살기 시작한 지 2년정도 경과한 상태에서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회의와 갈등이 심화되어 부인의 경우 가정생활에서 불만족 정도가 심한 상태였다.

2. 면담진행

추천된 대상자 에게 심층면담에 대한 동의를 추천자 혹은 연구자가 직접 얻고 전화나 방문을 통해 면담일시를 결정하였다. 부부면담은 부부 각자에 대한 면담을 1회 이상 실시하고, 부부 동시면담을 한 부부 당 1회씩 실시하여 총 28회의 면담이 이루어 졌다.

대부분의 면담시간은 개인 면담의 경우 최소 30-90분 정도 소요되었고, 부부 동시면담은 2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면담의 기록을 위해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과 기록을 병행하였고 면담은 연구자 본인이 직접 실시하였다. 면접시 질문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과거 회상적 내용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 까지 본인이 판단하기에 부부관계는 이렇게 유지해 왔다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진행하였다.

질문은 결혼생활은 어떠셨습니까?

결혼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 이었는지? 실제 어떻게 대처했는지 ?

부부관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부가 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바람직한 부부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를 자신의 경험을 예를 들어 이야기 하도록 부탁하였고, 가능한 중점적으로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범위를 좁혀 나가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결혼생활은 가족 전체의 문제로 대부분 범위가 확장되게 되고 이때 부부관계보다는 가족관계라는 틀 속에서 부부관계가 묻혀버릴 수 있는 제한점을 피하고자 하였다.

3. 면담결과 분석

1)면담내용분석

면담 결과의 분석을 위해 부부 면담자료의 내용을 분석하여 부부조화를 나타내고 있는 요소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면담의 내용에서 Data saturation을 확인하면서 자료의 수집사례를 결정하여 총 7쌍의 면담을 1997년 12월부터 1999년 10월 까지 실시하였다. 이 내용분석 작업은 면담자료의 의미를 알아낼 수 있는 전문가 3인의 도움을 받았는데, 1차 작업은 연구자 본인의 분석과 대조하여 분석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학 박사학위 이상으로 내용분석에 기초한 논문작성 경험이 있는 간호학교수 1인과 혼종모형을 적용한 개념개발 논문을 작성한 전문가 1인에게 의뢰하여 비교해 보았다.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부부조화개념의 속성들을 확인하여(표 1) 총 12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분류한 영역은 다시 동일 간호학교수 1인과 와 1인의 간호학 박사과정 수료자가 각자 영역을 분류하도록 하여 연구자의 결과와 비교하여 3인이 공통적으로 분류한 것은 약 70%이었고, 2인이 합의가 이루어진 영역을 포함하면 100%의 영역 합의를 보였다.

또한 부부조화 사례 7쌍과 반대 사례 1쌍의 면담결과를 비교함으로서 부부조화 개념의 속성을 명확히 하고 누락되거나 개념이 지나치게 편중되는 제한점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비교적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의 면담에서 확인된 개념들과 유사한 개념이 확인되었고 '적당히 포기함' 과 유사한 '타협'

이라는 표현으로 다른 개념으로는 '상대방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고 했는데 이는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표현이 있었다. 따라서 다른 부부의 면담에서 도출된 '배우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므로' '솔직한 대화'를 통해 배우자에 대해 많이 알게 될 수 있는 과정이 되므로 유사한 개념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남편에게도 사회생활에서 다른사람들이 호감을 갖게되는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하고 서로간에 자유를 가지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었는데 조화로운 부부들의 면담내용 중 "남편의 사회생활에 대한 기대"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부들의 공통 제안은 관심과 대화, 집중으로 나타났고 이 또한 이미 확인된 면담결과에서 찾을 수 있었다. 종교는 일반적 특성으로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종교일치가 영향변수로 작용하는지의 확인하는 접근법을 선택하여 항목에서 분리하여 일반적 특성으로 다룬다.

부부조화속성 중 기존의 개념들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속성들로는 인내, 긍정적 생활태도, 배우자에 대한 배려, 인격적 대우로 주로 자기인식에 관한 내용들로서 인간적 성숙이 필요한 것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총 12개의 속성의 원자료를 보면 한국적 정서가 배어나오는 "인내"는 무조건적인 참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참기가 아닌 자기수양의 의미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표현의 미덕을 가진 서구적인 색채와는 조금다른 점을 보여준다.

표 1. 부부면담자료에서 부부조화

의미있는 자료	속성
1.서로 참는다 2.서로 이기려고 하지 않기	인내
3.상대방에게 편하게 대하기 4.서로 겸손하게 대함 5.부인을 평등하게 대우함 6.상대방 존중함 7.신중하게 처신 8.배우자에 대해서는 자존심을 버린다.	인격적 대우
9.믿음(종교)이 같음 * 10.결혼생활의 같은 목표 가짐 11.돈이나 부에 대한 생각이 서로 맞는다. 12.서로 믿는다	가치추구의 유사성
13.아내가 싸움할 때 잘 받아줌 14.감정 사제후 지나고 나서 대화하기 15.부부싸움 후 먼저 화해하기 16.서로 양보함	갈등대처
17.상대방을 필요한 존재로 인식 18.배우자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 19.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20.상대방의 가치인정 21.남편의 사회생활에 대해 인정한다 22.배우자의 대인관계를 인정	가치인정
23.상대에게 맞추려고 노력 24.여가활동 선택을 배우자에게 맞춘다. 25.자신의 잘못을 고치려 노력함 26.나와 다른 점을 그대로 수용한다	적응
27.배우자가 하는 일에 협조함 28.상대방의 단점을 감싸준다 29.가사일을 서로 도와서 한다	헌신
30.경제적 어려움을 긍정적 생각으로 극복 31.행복함을 인식하려 노력함 32.살아가면서 좋은 점 크게 생각함 33.살면서 인생에 대해 욕심 부리지 않음 34.자신의 일에 충실함 35.어려울 때 스스로를 위로한다	긍정적 생활태도
36.남편의 장점을 생각 37.배우자에게 고마워함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태도
38.문제 해결을 서로 상의하기 39.크고 작은 일도 서로 상의해서 결정한다. 40.미래계획을 같이함 41.일상적인 대화 많이 함 42.솔직하게 이야기 함 43.상대에 대한 요구를 이야기 함	솔직한 대화
44.배우자의 약점을 자극하지 않기 45.남편의 위로 46.상대에게 잘해주려고 함 47.서로 배우자에게 충실함 48.서로 장점을 칭찬함 49.배우자에게 관심가짐	배우자에 대한 배려
50.부부관계시 배려해 줌 51.배우자를 소중하게 생각함 52.애정표현을 함	애정표현

“최근 같은 경우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한 방향을 추구하며 살다보니까 이 부부가 서로가 경쟁할려고 하지 않고 서로가 호사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 "
<김-박 면담>

"서로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데 자존심 안 버리구 서로 이기려구 하니까 그래 이루어지지가 않는거지. 서로 이해해야지 되는데. 서로 이해해주구 부부가 그런게 제일. 그래야 생활이 원만해질 것같애."<김-김 면담 >
“저도 조금 자제 하려고 하고...” <김-홍 면담 >

“긍정적 생활태도”로 명명된 속성은 주어진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갈등의 원인이 아닌 만족 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보여주었고 이는 남녀모두에게서 진술되는 공통의 내용이었음이 더욱 특징적이라고 생각된다.

" 그런 쪽으로 생각해요. 자꾸 나쁜 쪽이 오면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마음을 바꾸지,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상처를 입구 살 수가 없으니까. 전에 애기 조그말 때 어려웠어요 생활이. 그러면 아 건강한거루 내가 이것 만으로도 행복하지 속으로 이런 마음에 기도를 하지.“ <김-이면담 >
"사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리어카도 끌고 살았는데 주변에서 잉꼬부부라고 하고 모범이라고 했다. 하나도 힘든지 모르고 행복했다. 아마 서로 믿고 살고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인거 같다." < 최-이 면담 >

“배우자에 대한 배려”로 명명된 속성의 원자료는 자기자신 보다는 배우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마음을 쓰는 단순하게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닌 주는 관계로 주위의 여건에 좌우되지 않고 서로에게 충실한 가운데 좋은 부부관계로 발전하는 조화를 이루게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부부가 서로 같은 급에다 놓고서 이야기 하는거죠. 집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안그러면 어떡해요..."<김-이 면담 >
“남편-아내 관계가 아니라 인간대 인간으로 서로 존중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
<김-박 면담 >
"누구보다 부부간에 서로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상대방 의견도 존중할 줄 알아야 ..."< 김-홍면담 >

“인격적 대우”는 부부관계가 수평관계로서 단순한 평등의 의미가 아닌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하고 있고 한 사람의 일방적인 태도가 아닌 부부 두사람이 함께 하는 행위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좋은건 좋다구 두둔도 좀 해주구 상대방한테 좀, 상대방에게 가급적이면 아프거나 약점인 부분을 될수 있으면 지적하지 않구 그걸 어떻게 타파할 수 있게끔...."
<김-김 면담 >
"나한테 와서 고생도 많이 하고... 술을 한잔 마시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내 심정을 잘 알지. 그래서 좀 위로하는 편이예요. 여자는 말 한마디에 굉장이 위로를 받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해요."<김-이 면담 >
"서로 이해하고 마누라를 많이 생각해주면 자동적으로 잘해주고 그게 나한테도 오는거니까... 내가 이해하고 나를 이해해 줄 꺼고 그러다 보면 화목해지는거 아닌가.... 싸울일도 없고 부수적인거는 좀 도와주는거, 마누라를, 빨래라도 널어주거나 생활도 도와주고..."<권-곽 면담>
“주변여건으로 불협화음이 보통 생기는데 이해하고 서로 충실하다 보면 잘 지낼 수 있다."<김-김면담 >

“솔직한 대화”는 기존의 속성들에서 제시되었던 의사소통과 결정과 유사한 영역이나 차이점은 행위자체는 대화이나 대화에 임하는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요한 “솔직함”이 강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서로 상의하고 의논하고 그랬고 서로 이해할려구는 많이 해요. "<김-박 면담 >
"서로가 일단 부부가 신뢰감이 되도록 믿어야 되고, 서로간에 상의해서 살아가는게 제일 좋을 것 같아."<곽-권면담 >
"모든 일을 시댁·친정일을 터놓고 이야기 해요. 객관적으로 얘기해주니까 편협되지 않아요."<김-홍 면담>
"나는 뱃속까지는 들어가 보지는 못 했지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얘기가 있으면 진실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자기 마음처럼 똑같은 평준하게 확실하게 진실성 있게 얘기하다 보면은 뭔가 상통할 수 있다는 얘기죠,"<김-김 면담 >
"내가 아껴주구 내 집식구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진실하게 솔직하게 토의하구 상의하는 게 편할거다. 그래야 가정이 완만하다.."<김-김면담 >

부부면담자료에서 나타난 '헌신'은 원자료가 '배우자의 단점(약점)을 보완한다' 이고 '배우자의 약점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선권을 위한 투쟁과 무엇인가를 교환하는 관계가 아니라 지극한 애정을 가진 우리의 문화적 특성이 배어있는 개인위주의 사고가 아닌 인간관계 중에서도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모든 인간관계의 근원으로 보는 부부관계의 고차원적인 면을 볼 수 있게 하는 자료이다. 다분히 행동중심적이 아닌 의식의 세계를 중시하고 있는, 언어적 표현을 중시하기 보다는 비언어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이해하고 이해받는 문화적 특성이 나타난다. 부부면담에서 확인된 부부조화의 속성 중 문헌에서 강조되지 않았던 속성들은 자기자신의 긍정적 태도와 노력,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노력을 들 수 있다.

2) **면담자의 면담자료** Pile sorting **결과**

면담 대상자에 의한 Pile sorting은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에서 연구자의 편견을 조정하여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부부면담시 참여 했던 부부에게 면담자료에서 도출된 문항들이 총 52개였고 이를 기술한 카드를 작성하여 면담에 참여했던 대상자들로 하여금 비슷한 것을 분류해 내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총 4쌍의 부부가 분류한 자료는 4가지 - 11가지의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결과에서 보면 영역간의 차이가 있으나 영역의 명칭에서 보면 4가지나 6가지의 영역으로 통합될 수 있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는데 많은 영역의 경우는 구체적인 행동 중심으로 나누어 진 것을 알 수 있고, 4-5가지의 영역의 경우는 행위자 중심의 구분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면담자 8명이 명명한 영역의 명칭에서 보면, 첫째, 태도와 행위로 나누어지고, 둘째,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부부상호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나뉘고, 셋째, '상대에 대한 배려'와 '배우자에 대한 노력행동'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은 같은 의미를 찾아보면 '배려' '양보' '배우자에 대한 노력' '존경' '대화'로 정리 할 수 있다. 넷째,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태도'라고 표현한 것은 '참기' '고마워 함' '인내' '헌신' '기대감' '본인의 처신'과 같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섯째, '부

부 상호노력'은 '협조' '신뢰' '의논 결정' '공동체 의식' '공동으로 함' '상호 이해' '상호인정'으로 공동으로 행하게 되는 내용과 같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상자들 간의 영역에 대한 명칭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으나, 각 항목의 분포는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자와 전문가가 분류한 자료를 비교할 때와는 달리 일반인들의 경우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자신의 경험들을 기술한 내용이지만 전문적인 자료의 분석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들이었고, 항목이 행위와 태도를 나타내는 큰 흐름이 있어 태도에 따른 결과로 행위를 연계하여 인식한 경우 유사한 영역으로 합해 질 수 있어, 그렇지 않은 분류자와는 공통점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영역의 명칭은 포괄적으로 주어진 경우 세분화하여 구분한 영역의 명칭과 연관 지어질 수 있었고, 이렇게 재분류한 영역들의 항목 비교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3) 연구자의 면담자료 분석과 연구 대상자의 pile sorting 결과의 비교

면담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분석 결과 총 12개의 속성영역이 나왔고, 면담 대상자들의 pile sorting 결과는 크게 3군으로 나뉘어 졌는데 자기자신, 배우자, 공동의 영역으로 배우자영역은 공동의 영역으로 함께 취급되어 궁극적으로 각자의 배우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를 비교해보면 연구자와 대상자 간에 속성의 명칭이 큰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고, 영역 또한 차이가 없어 의미 부여는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의 차이가 없고 문장에 대한 의미 부여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표 2)

같은 문장에 의미 부여가 다른 것은 '공동' 영역보다는 자신과 배우자에 관한 영역이었는데,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 기전을 표현하는 '태도'와 '행위'가 서로 혼합되어 분석되고 있어 분명하게 '행위'를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과 포괄적으로 접근 할 때 특히 차이가 있는 즉, 문장에 대한 의미부여가 다르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적은 수의 대상자에게서 확인 할 수 있는 점은 제한적이므로 다수의 대상이 부여하는 의미를 찾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표 2. 연구자와 면담자의 영역에 대한 명명 비교

연구자 분석 속성	대상자 분석 속성
인내	인내
인격적 대우	존경,
가치추구의 유사성	상호구체적 노력, 협조
갈등대처	양보, 인내, 참기
배우자 가치인정	상호인정,
적응	자신의 고칠점, 상대방에 맞추기
헌신	헌신
긍정적 생활태도	자신의 태도, 노력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	상호인정, 인정
솔직한 대화	신뢰, 협조
배우자에 대한 배려	배려
애정표현	

C. 부부조화 개념의 통합속성 확인

문헌 상의 개념과 현장 면담시 부부조화 개념의 비교 통합으로 부부조화의 새로운 개념 틀을 작성하고 문항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였다. 현장 면담자료에서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문헌상의 속성들을 합하여 부부조화개념의 속성들을 보충하였는데, 기본적 영역은 3가지로 행위자 중심의 분류를 들 수 있는데 '자기자신에 관련된 영역' '배우자에 관련된 영역' '부부공동에 관련된 영역'이었고, 다른 분류방법은 행동중심의 분류로 부부면담에서 도출된 12개의 속성역역과 부부관계 개념들의 공통 영역에서 확인되었으나 면담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2개의 영역(자녀, 시부모에 대한 영역)을 추가하였다. 자녀영역은 따로 분류하였으나 시부모에 관한 영역은 양가부모로 확대하여 부부가 공히 양가의 부모에 대한 배우자의 기대에 배려하는 차원으로 '배우자에 대한 배려'의 영역에 추가하였다. 따라서 부부조화의 속성영역은 총 13개로 세분화 될 수 있으며 부부면담결과의 영역과 부부

관계 개념의 영역과의 비교 후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표 3. 문헌과 면담을 통한 부부조화 속성 결정

문헌고찰 속성	면담자료 분석 속성	부부조화 속성
	인내	인내
존중	인격적 대우	존중
일체감	가치추구의 유사성	가치추구의 유사성
	갈등대처	신속한 갈등해결
	배우자 가치인정	배우자 가치인정
적응	적응	적응
	헌신	헌신
만족	긍정적 생활태도	긍정적 생활태도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
교류	솔직한 대화	솔직한 대화
	배우자에 대한 배려	배려
	애정표현	애정
	*****	자녀양육 방법의 일치

D. 부부조화 측정을 위한 문항 개발

1. 도구의 형태결정

잠정적인 문항 작성 작업 후에 총 6명의 부부조화에 대한 전문 간호학 교수와 가족이나 부부관계의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로 간호학, 가족관계학, 사회학전공 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내용을 보완하거나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과정을 거쳐 내용타당도를 높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Pilot test 실시하기 위해 가척도는 4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문장의 의미전달에 무리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부부 26명(13쌍)에게 설문의 내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76개의 문항 중 이해하기가 모호한 문장을 수정하고, 중복되는 의미로 나타난 문항을 모호한 문항은 수정하고 전문가들의 동의를 얻어 총 64문항으로 최종설문을 결정하였다.

도구의 형태는 부부 각자에게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 할 수 있는 공동사용 가능한 형식을 갖도록 하여 부부 각자의 상태와 부부가 합쳐진 상태로 나타낼 수 있는 둘의 조화상태를 가늠하게 하였다. 부부관계 조사도구들 대부분이 부부 중 한사람을 통해 부부관계를 추정하고 있고, 남편용, 부인용으로 따로 제작된 도구가 있는가 하면, 부부가 각자 질문에 답변하게 하되 두사람의 답변내용을 절대값을 구하는 형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부 각자가 답변할 수 있는 질문지 형태로 자기인식과 행위 배우자에 대한 인식과 행위, 공동인식과 행위부분으로 구별될 수 있는 심층면접의 자료와 문헌고찰에서 나온 내용을 참조로 척도를 제작하였다.

E. 현장적용을 통한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1. 자료수집 절차 및 방법

실제조사는 2000년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D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자와 설문조사의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학생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대상의 선정은 가족주기별로 배정하여 아파트와 주택을 방문하여 질문지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여자중학교 1개교와 남자고등학교는 2개교를 선정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아 설문지를 배포하고 학생들 편에 회수하는 질문지 조사법을 병행하였다.

질문지 기입에 대한 요령은 학생들에게 미리 교육하고 부모님이 따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설문의 내용에도 작성 요령을 기재하였다. 가족주기에 따른 할당표집을 위해 Duvall이 제시한 8단계의 가족주기에 비슷한 비중을 배정하여 제 1기인 신혼기부터 제 7기인 중년기까지의 대상자 확보를 위해 신혼부부,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총 530개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거부 12, 부인만 회수되어 사용하지 못한 자료 10, 자료의 내용이 미흡한 28개를 제외하고 482개 설문이 분석에 이용되어 회수율은 약 90%로 높았다.

2. 부부조화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녀의 비율은 같은 분포였으며, 교육정도는 고졸이 가장 많은 분포로 37.8%, 초등학교 졸업이 3.9%로 가장 낮았다. 전문직이 28.2%로 가장 많았고 관리직과 생산직이 가장 낮은 4.8%, 5% 였으며, 경제적 상태에 대해서는 '상'이 2.1% '하'가 3.9%로 가장 낮은 분포였으며, '중중'이 53.1%로 가장 많은 분포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에 의한 계층분포와 유사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가족주기에 따른 분포를 보면 표집당시에도 임의 할당표집을 시도하여 신혼기부터 진수기, 중년기 가족에 이르는 가정의 부부를 표집한 바 10대 가족주기의 분포가 가장 많았고 학령전기 가족이 가장 적은 5.8%의 분포였다.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이 가장 많은 85.5%로 우리나라의 가족형태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결혼의 형태도 연애결혼이 55%이고 절충혼의 경우와 합하면 60%를 상회하는 주요형태임을 알 수 있다. 부부의 종교가 일치하는가의 질문에 75.3%가 동일한 종교상태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부록 3)

2)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항목 신뢰도 계수와 전체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는데 Cronbach's α 계수 .9547로 높은 신뢰계수를 나타냈다. 부부조화 개념의 요인분석 결과 총 14개 영역 중 item이 2개 이상 배정된 영역별로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Cronbach α .8822 - .5723의 분포로 공동의식(.8822), 이해(.8753), 존중(.8634),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8012), 긍정적 생활태도(.7492), 무책임(.7387), 애정관(.7762), 적극적 의사표현(.7282), 자녀관(.7482)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 적응(.5723)영역만이 낮았으나 비교적 양호한 세부영역별 신뢰도를 보였다. (표 4)

표 4 부부조화 세부 영역별 신뢰도 계수

영역명	Scale Mean if Item Deleted	Scale Variance if Item Deleted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Squared Multiple Corr.	Alpha if Item Deleted	Alpha
함께함						
가정경제권 결정	29.7118	24.8620	.5324	.3513	.8781	
협력	29.5873	24.6980	.6499	.4684	.8678	
조기해결	29.7533	24.5976	.5541	.3358	.8763	
대화	29.6528	24.7392	.6590	.4562	.8672	
경제관념	29.9236	24.3815	.5653	.3490	.8756	
함께결정	29.6725	24.3827	.6970	.4997	.8640	
같은 표	29.7467	23.9051	.6790	.5655	.8649	
같이미래계획	29.6485	24.0622	.6929	.5726	.8639	
서로협조	29.6048	24.4627	.6672	.4678	.8663	.8822
포용						
단점수용	31.1164	30.7640	.5601	.3669	.8662	
싸움포용	31.5409	29.7651	.5426	.3200	.8681	
자손심머리기	31.5453	29.7129	.5593	.3431	.8666	
상대방 이해	31.2780	30.2314	.6255	.4345	.8616	
겸손	31.4052	30.1076	.6138	.4042	.8623	
인내	31.4935	29.6285	.5894	.3869	.8640	
이기려하지않기	31.4526	29.8120	.5618	.3567	.8663	
양보	31.2737	29.8061	.6763	.4885	.8580	
심한언행 자제	31.1099	29.0397	.6307	.4517	.8607	
흉분시참아주기	31.1552	29.5525	.6430	.4656	.8599	.8753
존중						
서로 관심	27.3209	15.5796	.6150	.4051	.8465	
서로 신뢰	27.3011	15.1668	.5970	.3810	.8487	
서로 평등	27.6022	15.5793	.5268	.2828	.8570	
소중히 여김	26.8857	15.8063	.6273	.4178	.8458	
사회생활 인정	27.2440	15.6518	.6370	.4714	.8445	
대인관계 이해	27.3209	15.2448	.6628	.5070	.8412	
진정한친구	27.5099	14.6337	.6088	.3984	.8486	
있는그대로 받아들임	27.4000	15.3815	.6560	.4501	.8421	.8634
배려						
편안한마음	19.2415	9.0101	.5904	.3639	.7625	
고마운마음	19.0940	9.7599	.4713	.2434	.7892	
약점 수용	19.5000	9.6638	.3886	.1699	.8134	
편하게해줌	19.2415	8.9544	.6829	.4924	.7427	
좋아하는 것 해주기	19.3547	9.0302	.6456	.4656	.7505	
서로 위로	19.2628	9.1877	.6029	.3844	.8012	.7602
긍정적생활태도						
욕심부리지 않기	24.0469	10.2457	.1711	.0449	.7892	
자신의일충실	23.3348	9.3813	.5256	.3429	.7086	
결혼생활 책임감	23.1023	9.0280	.6061	.4574	.6919	
가정일 신중처리	23.4072	8.9470	.5482	.3975	.7008	
긍정적 사고	23.5544	8.8459	.4747	.2545	.7172	
경제적어려움극복	23.5757	8.6892	.5202	.3346	.7059	
자기 위로	23.5629	9.1910	.5032	.3176	.7110	.7492
무책임						
불필요한존재	24.0791	19.6149	.3977	.1894	.7216	
다시결혼안함	24.2615	20.2640	.3834	.1717	.7226	
서로 무관심	23.8154	20.2302	.4839	.2985	.7026	
서로존중하지않음	23.8923	20.3342	.5126	.3264	.6986	
화해 청하지않음	24.2220	20.3405	.4359	.2070	.7113	
대화 단절	24.2396	20.7597	.4044	.1724	.7172	
가사 미분담	24.5451	21.0283	.3679	.1813	.7240	
둘만의 시간회피	24.1912	20.0272	.5032	.2775	.6988	.7387
애정표현						
서로 사랑	11.0630	4.6736	.6075	.3705	.7089	
부부동반 참석	11.3500	4.7727	.5158	.2922	.7553	
애정 표현	11.4935	4.2636	.6537	.4342	.6814	
부부 관계	11.3935	4.7446	.5461	.3391	.7393	.7762
적극적의사표현						
장점칭찬	10.4869	4.2504	.4609	.2214	.7029	
서로요구 대화	10.4738	4.3724	.5385	.3219	.6578	
여가활동 상의	10.5611	3.9098	.5631	.3450	.6399	
서로일협조	10.3603	4.3666	.5177	.2693	.6683	.7282
자녀관						
체벌	7.5714	2.3908	.4886	.2477	.7611	
기대치	7.3582	2.4154	.5826	.3906	.6500	
자녀양육	7.2462	2.1816	.6529	.4462	.5635	.7452
적응						
양가부모 모시기	7.1996	1.7073	.3564	.1272	.5098	
있는그대로 받아들이기	7.4583	1.5323	.4089	.1693	.4282	
자신의 잘못 고치기	7.2281	1.8204	.3840	.1504	.4718	.5723
Total						.9547

면접자료를 기반으로 도구의 구성타당도 분석은 요인분석을 통한 영역과 내용의 분류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요인분석결과 Eigen value 1.0이상 총 1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60% 의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고(부록 4), 64개 요인을 Varimax rotation하여 영역을 확인한 결과 12개 요인에 분포되었고 각 영역의 명칭은 Varimax rotation결과 문항이 배당되지 않은 2영역과 한 문항씩으로만 구성된 2영역을 제외하고 10개 영역에 대한 명명을 하였다.(표 5) 그리고 결혼만족도 측정도구 중 단일차원의 척도로 간결하며 신뢰도가 높아 많이 사용되고 있는 4문항으로 구성된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사용하여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고 부부조화 측정값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r= .585(P=.000)로 높은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높은 구인 타당도를 나타냈다.

3. 부부조화개념의 중요도

부부조화 개념에 대한 자신들의 주관적 중요도는 5점 만점에 4점 이상인 문항은 총 64문항 중 14개문항 이었고 "나는 배우자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가 4.55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3점 미만인 문항은 8문항으로 "나는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는 관심이 없다"가 2.28점이었고 8문항 모두 부정형의 문장으로 질문한 것으로서 이는 부부조화 개념에서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부정형의 문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문항이 3.5점 이상으로 좋은 부부관계를 이루는데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부록 5) 각 항목에 대한 대상자들의 중요도 점수는 큰 차이가 없어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비중으로 반영하는데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다.

표 5. 부부조화 요인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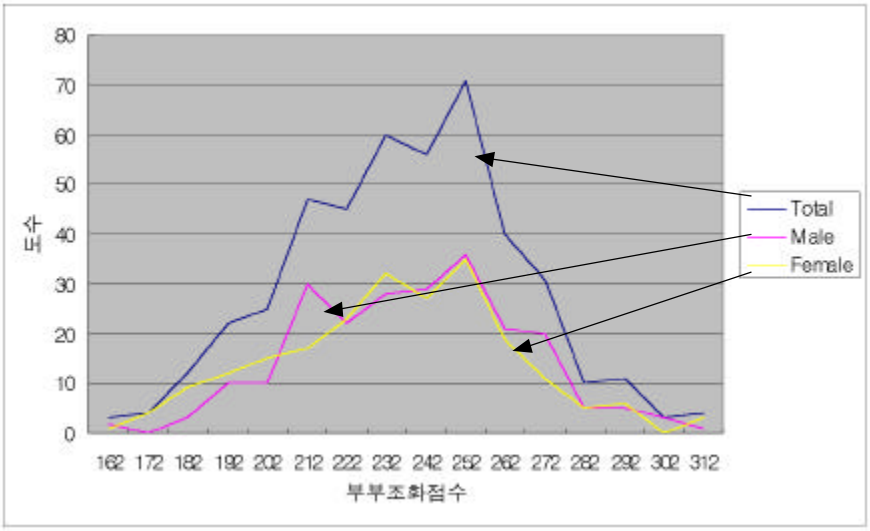
영역명	문항	영역별 분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함께함	우리는 가정경제권 결정을 같이 한다	.687													
	우리는 함께 계획한 일을 할 때 협력하여 한다	.649													
	서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빨리 풀려고 한다	.361													
	우리는 문제해결을 위해 이야기 한다	.584													
	우리는 돈이나 부에 대한 가치관이 비슷하다	.485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같이 한다	.666													
	우리는 결혼생활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476													
	우리는 같이 미래를 계획한다	.544													
	우리는 서로가 하는 일에 협조한다	.436													
포용	우리는 서로 배우자의 단점을 감싸준다		.376												
	우리는 상대방의 짜증을 잘 받아준다		.493												
	우리는 서로에게 자존심을 버린다		.473												
	의견이 다를 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한다		.500												
	우리는 서로에게 겸손하게 대한다		.505												
	우리는 싸울 일이 있어도 참는다		.647												
	우리는 싸울 때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770												
	우리는 서로 양보한다		.640												
	우리는 싸울 때 심한 언행을 자제한다		.627												
	우리는 배우자가 흡분시 대항하지 않고 참아준다		.653												
존중	우리는 서로 배우자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418											
	우리는 서로를 신뢰한다			.346											
	우리는 서로를 평등하게 대한다			.420											
	나는 배우자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457											
	우리는 서로의 사회생활에 대해 인정한다			.734											
	우리는 서로의 대인관계를 이해하려고 한다			.721											
	우리는 서로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한다			.503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565											
배려	나는 배우자를 편안한 마음으로 대한다				.543										
	나는 배우자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갖는다				.533										
	나는 배우자의 약점을 자극하지 않는다				.550										
	우리는 배우자를 편하게 해주려고 한다				.651										
	우리는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려고 한다				.553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를 위로해준다				.589										
긍정적 생활태도	나는 일상생활에서 욕심부리지 않는다					.161									
	나는 자신의 일에 충실하려고 한다					.671									
	나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책임감을 갖는다					.693									
	나는 가정 일에 신중하게 처신한다					.679									
	나는 나쁜 것보다 좋은 일에 큰 의미를 둔다					.597									
	나는 경제적 어려움도 극복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656									
	나는 어려운 때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한다					.618									
무책임	나는 배우자에게 꼭 필요한존재라 생각지 않는다						.530								
	다시 태어나면 현재배우자의 결혼하고 싶지않다						.535								
	우리는 배우자가 원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						.631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						.591								
	우리는 부부싸움 후 먼저 화해를 청하지 않는다						.523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다						.559								
	우리는 가사일을 함께 분담하지 않는다						.420								
	우리는 부부둘만의 시간을 갖으려 하지 않는다						.614								
애정표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							.393							
	우리는 부부동반 모임에 함께 참석하려고 한다							.484							
	우리는 배우자가 원하는 애정표현을 하려고 한다							.663							
	우리는 부부관계시 배우자의 기분을 잘맞춰준다							.591							
적극적 의사표현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칭찬해 준다								.480						
	우리는 서로에 대해 요구를 이야기 하는 편이다								.526						
	우리는 여가활동을 서로 상의해서 한다								.577						
	우리는 서로 하고 싶어하는 일을 도와준다								.362						
자녀관	우리는 자녀의 체벌에 대해 상의한다									.491					
	우리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비슷하다									.723					
	우리는 서로 자녀양육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706					
적응	우리는 양가부모에 대해 모두 잘 하려고 한다										.309				
	우리는 서로 다른 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404				
	나는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고 한다										.606				
	우리는 말을 안해도 서로가 원하는 것을 안다											.598			
	나는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한다.												.336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4. 부부조화 점수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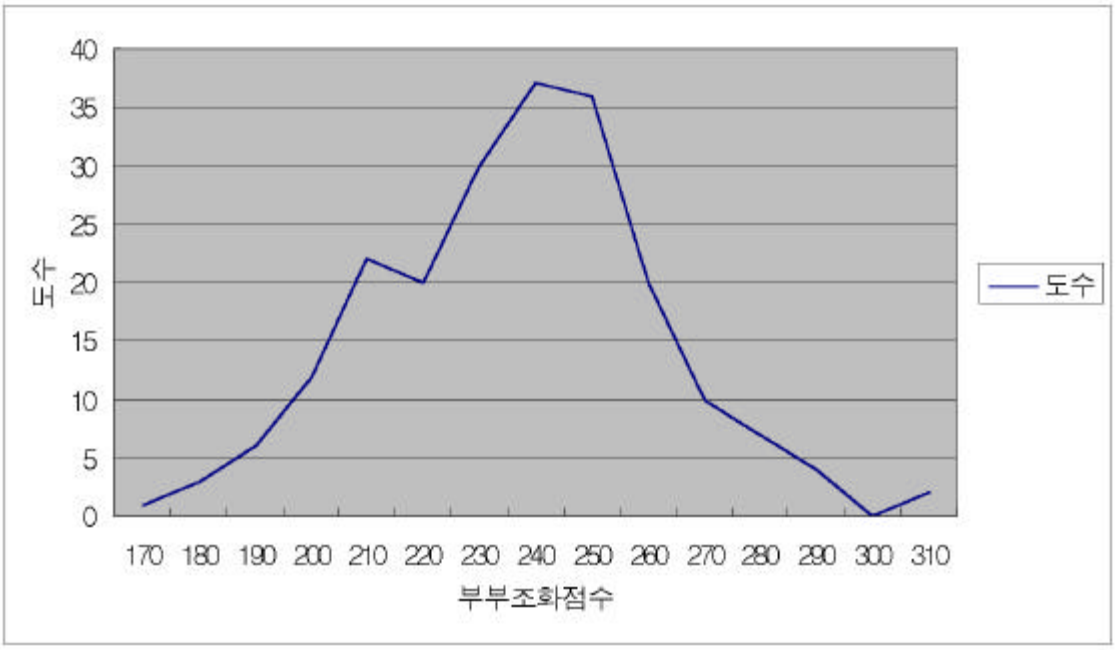
부부조화 점수는 클 수록 부부조화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최저 64점부터 최고 320점까지의 점수분포가 가능하다. 조사대상자는 전체 482명(241쌍)의 조사결과는 부부조화도 점수분포가 전체 대상자(482명), 남자, 여자 각각 241명이 거의 유사한 형태를 나타냈고,(그림 4) 부부를 한 단위(unit)으로 하여 개별부부의 항목간 합을 둘로 나누어 각 항목의 조화점수로 보고 64개 항목의 합을 구한 값의 분포도 역시 위의 분포도와 유사한 형태를 나타냈다.(그림 5)

그림 4. 성별에 따른 부부조화 점수의 비교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부조화 점수의 분포는 남자는 평균 237점, 여자는 평균 234점으로 최하점 157점부터 314점까지의 분포를 나타냈고 남녀간의 부부조화 점수는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고,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241점으로 가장 높은 조화도를 보였고, 50대가 233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부부의 종교가 일치하는 경우 237점이고 다른 경우인 232점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직업은 전문직인 경우 243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부인 경우 230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림 5. 개별부부의 부부조화 점수 분포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상태는 "상"인 경우 264점, '중하'의 경우 236점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여 경제상태가 부부조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형태는 중매혼 233점, 절충혼 230점으로 연애혼 237점 보다 낮았다. 교육수준은 대학원졸 집단이 243점으로 가장 높은 부부조화 점수였고 중졸이 228점으로 가장 낮아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조화도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주기에 따라서는 첫아이 연령이 0-3세 군이 241점으로 가장 높고 첫 자녀 연령이 26세 이상인 경우 230점의 분포로 가장 낮았다. 가족의 형태는 시가식구와 동거하는 경우 26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227점의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표 6) 부부조화 영역을 세부적으로 행위자 중심으로 세가지로 구분하여 남녀간의 점수차이를 비교해보면 세영역 모두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다.(표 7)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부조화 수준 비교

항목		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t orF	P
연령	29세 미만	55	241 ±25.0	181	308		
	30-39세	109	235 ±28.2	166	312		
	40-49세	213	236 ±28.2	178	314	.765	.514
	50대 이상	50	233 ±28.3	181	284		
	Total	427	236 ±27.8	166	314		
직업	전문직	130	243 ±27.0	157	314		
	관리직	22	236 ±31.0	173	296		
	사무직	49	235 ±26.7	166	295		
	생산직	22	235 ±29.6	182	302		
	판매직	26	234 ±25.1	168	282	2.270	.028*
	서비스직	38	232 ±30.6	181	308		
	주부	117	230 ±29.0	166	310		
	무직	40	233 ±25.0	187	312		
	Total	444	235 ±28.2	157	314		
성별	남	225	237 ±28.0	162	314	.439	.531
	녀	219	234 ±28.5	157	312		
교육기간	초졸	19	229 ±26.8	184	282		
	중졸	42	228 ±24.2	166	268		
	고졸	166	232 ±26.9	157	310	2.932	.021*
	대졸	161	239 ±30.3	168	314		
	대학원졸	51	243 ±26.6	181	291		
	Total	439	235 ±28.2	157	314		

표 6-1. 개별부부의 특성에 따른 부부조화 수준 비교

항목		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t	p
경제수준	상	8	264 ±37.4	210	314		
	중상	69	242 ±26.0	179	308		
	중중	237	236 ±27.9	157	310	4.925	.001*
	중하	109	228 ±27.4	166	294		
	하	16	236 ±30.1	168	290		
	Total	439	236 ±28.2	157	314		
결혼형태	중매결혼	168	233 ±27.0	166	314		
	연애결혼	247	237 ±28.8	157	310	1.622	.199
	절충혼	27	230 ±29.3	169	279		
	Total	442	235 ±28.2	157	314		
종교일치	예	335	237 ±28.0	168	314	1.439	.152
	아니오	109	232 ±28.5	166	311		
가족주기	신혼기	53	240 ±24.7	179	308		
(자녀연령)	0-3	33	241 ±32.1	181	290		
	4-6	23	233 ±18.5	195	271		
	7-12	57	234 ±30.1	157	302		
	13-15	53	237 ±25.0	182	294	.788	.597
	16-18	121	233 ±28.6	166	314		
	19-25	81	237 ±30.7	181	310		
	26↑	23	230 ±29.4	190	284		
	Total	444	235 ±28.2	157	314		

표 7. 남녀별 부부조화 점수의 세영역 비교

영역	성별	수	평균	t	p
자기자신 영역	남	225	60 ±6.5	.927	.354
	여	219	59 ±7.7		
배우자 영역	남	225	103 ±12.9	1.541	.124
	여	219	101 ±13.5		
공동 영역	남	225	69 ±9.3	1.176	.240
	여	219	68 ±9.6		
전체	남	225	237 ±27.3	.453	.531
	여	219	234 ±28.1		

각 대상자에서 중간 60%에 해당하는 조화점수가 부인의 경우가 남편의 경우보다 4-6점 정도 낮았고 위와 같은 조화도 점수분포로 남자는 214점 미만과 여자는 208점 미만의 경우 낮은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고, 남자는 261점 이상 여자는 257점 이상의 경우 높은 수준의 부부조화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

표 8. 대상자 분류별 부부조화 점수 비교

	수	20th percentile	80th percentile
부부조화점수(부부 합)	222	213.5	255
전체	444	213	258
남자	222	214	261.6
여자	222	208	257

부부조화 영역을 12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남녀간의 조화점수 차이를 비교해보면 2개의 영역에서 남녀간에 통계적으로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9) 각각의 영역에서 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남자보다 여자가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특히 '배려' 와 '적극적 의사표현'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인의 조화점수 분포가 남편에 비해 부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었지만 '나는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12영역의 항목점수가 부인의 경우 11영역과 함께 유일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는 점은 부인이 비교적 수동적인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9. 10개 영역별 남녀의 부부조화 점수비교

영역	성별	수	평균		t	p
함께 함	남	225	33.6000	±4.9911	1.382	.168
	여	219	33.2694	±5.9490		
포용	남	225	35.1244	±5.7889	1.712	.208
	여	219	34.5388	±5.9672		
존중	남	225	31.3111	±4.4542	1.498	.135
	여	219	31.0639	±4.4921		
배려	남	225	23.3956	±3.3831	2.003	.046*
	여	219	22.8676	±3.6442		
긍정적 생활태도	남	225	27.5778	±3.3520	-.885	.377
	여	219	27.3379	±3.6049		
무책임	남	225	27.8711	±5.1674	-.336	.737
	여	219	27.2329	±4.8854		
애정표현	남	225	15.2533	±2.5761	1.628	.104
	여	219	14.9178	±2.9214		
적극적 의사표현	남	225	14.1467	±2.5144	2.722	.007**
	여	219	13.7900	±2.6856		
자녀관	남	225	11.2044	±2.0859	-.301	.764
	여	219	10.9224	±2.2151		
적응	남	225	11.0800	±1.8059	.488	.626
	여	219	10.8219	±1.7321		
우리는 말을 안해도	남	225	3.5511	±.8228	1.100	.272
서로가 원하는 것을 안다	여	219	3.5936	±.8536		
나는 배우자에게 최선을	남	225	3.6667	±.8399	2.156	.032*
다한다	여	219	3.7260	±.7886		

*p<.05 , ** p<.01

F. 부부조화 측정도구의 형태 결정

위와 같은 결과로 부부조화 측정도구의 형태는 총 74개 문항으로 두가지 차원의 측정이 가능한데 첫째, 행위자 중심의 부부조화 수준의 측정을 통해 영역별 조화도 수준을 확인할 수 있고 둘째, 행위에 대한 의미별로 12개영역으로 구분하여 영역별 세분화 작업을 통해 구체적인 활동중심으로 부부조화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다. 부부조화의 수준은 각 항목에 1점에서 5점까지 Likert type의 점수를 배정하고 각 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전체 부부조화의 수준을 나타내게 되고 3가지나 12가지의 영역별 점수도 산출하여 대상자의 부부조화 수준을 나타낼 수 있게된다. 따라서 본 도구는 영역 구분은 첫째, 행위자 중심의 세가지 영역을 바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둘째, 문항의 의미에 따라 속성을 나누어 총 12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질 수 있고 도구의 형태는 부부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문항개발이 이루어 졌다. 이는 도구의 사용에 편이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과 부부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부부 각자나 부부가 함께 느끼는 주관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부부중에 누구라도 부부조화 상태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진다.(표 10) 부부조화 도구의 3영역과 12영역에 해당되는 문항의 분포는 부록에 제시하기로 하고, 64개 문항 중 8개의 부부조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 문항은 점수 환산시에 역으로 환산하여 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귀하의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고, 부부관계를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다 5	그렇다 4	보통이다 3	그렇지 않다 2	매우 그렇지 않다 1
나는 일상생활에서 욕심부리지 않는다					
나는 자신의 일에 충실하려고 한다					
나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책임감을 갖는다					
나는 가정 일에 신중하게 처신한다.					
나는 나쁜 것보다 좋은 일에 큰 의미를 둔다					
나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려울 때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한다.					
나는 배우자를 편안한 마음으로 대한다.					
나는 배우자에 대해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배우자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갖는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					
나는 배우자의 약점을 자극하지 않는다.					
우리는 배우자를 편하게 해주려고 한다					
우리는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려고 한다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칭찬해준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를 위로해 준다.					
우리는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관심이 없다.					
우리는 서로 배우자의 단점을 감싸준다.					
우리는 서로 배우자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우리는 상대방의 짜증을 잘 받아준다.					
우리는 양가부모에 대해 모두 잘 하려고 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자존심을 버린다.					
우리는 의견이 다를 때 서로 상대방의입장을이해하려고 한다.					
우리는 서로를 신뢰한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서로에게 겸손하게 대한다..					
우리는 서로를 평등하게 대한다.					
우리는 가정경제권 결정을 같이 한다					
우리는 함께 계획한 일을 할 때 협력하여 한다.					
우리는 서로 싸울 일이 있어도 참는다.					
우리는 싸울 때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 양보한다.					
우리는 싸울 때 심한 언행을 자제한다.					
우리는 배우자가 흥분할 때 대항하지 않고 참아준다.					
우리는 서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빨리 풀려고 한다					
우리는 부부싸움 후에 먼저 화해를 청하지 않는다.					

	매우 그렇다 5	그렇다 4	보통이다 3	그렇지 않다 2	매우 그렇지 않다 1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요구를 이야기 하는 편이다.					
우리는 여가활동을 서로 상의해서 한다					
우리는 문제해결을 위해 이야기 한다.					
우리는 돈이나 부에 대한 가치관이 비슷하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같이한다.					
우리는 결혼생활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같이 미래를 계획한다.					
우리는 서로가 하는 일에 협조한다					
우리는 말을 안해도 서로가 원하는 것을 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는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고 한다					
나는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가사일을 함께 분담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 하고 싶어하는 일을 도와준다.					
우리는 부부 둘 만의 시간을 갖으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					
우리는 부부동반 모임에 함께 참석하려고 한다.					
우리부부는 배우자가 원하는 애정표현을 하려고 한다.					
우리는 부부관계 시 배우자의 기분을 잘 맞추어 준다.					

나는 배우자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서로의 사회생활에 대해 인정한다.					
우리는 서로의 대인관계를 이해하려고 한다.					
우리는 서로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한다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자녀의 체벌에 대해 상의한다.					
우리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비슷하다.					
우리는 서로 자녀양육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 문항 중 진한게 표시한 것은 점수 환산시 역으로 점수를 준다.

Ⅳ.논의

A. 부부조화 영역별 부부조화 수준의 비교

부부조화 영역별 수준을 남녀별로 비교해보면 '공동의식''이해' '존중' 영역은 큰 차이가 없었고 제 4요인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영역에서 12번 항목' 나는 배우자의 약점을 자극하지 않는다' 가 남편이 더욱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표 11) 제 5영역인 '자아의식' 중 2번 항목인 ' 나는 자신의 일에 충실하려고 한다'는 남편의 경우가 월등하게 부인보다 높게 나타나 직업을 가진 남자의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되고 부인의 경우 남편보다 부정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 제 6영역 중 11번 항목'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남편보다 부인이 .23점 이 낮아 가장 차이가 많은 항목이다. 제 7영역 중 '우리는 가사일을 함께 분담하지 않는다' '우리는 부부 둘만의 시간을 갖으려고 하지 않는다'와 제 9영역 중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칭찬해 준다' '우리는 여가활동을 서로 상의해서 한다' '우리는 서로 자녀에 대한 기대가 비슷하다' 제 9영역인 '적응'영역 중 '나는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 한다'는 항목들이 모두 남편보다 부인이 낮은 점수 분포를 일관되게 나타내고 있음은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으로 노치영(1997)연구에서 '자아분화'라는 자아의식의 발전을 통해 부부만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서 남편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성향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대처해 나간다는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부인에게 있어서의 인지변수의 영향이 큰걸 알게 하며 이에대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좋은 부부관계라는 부부조화상태는 한 순간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기점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한 현재에도 과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부부중에서 어느 한 쪽 만의 일방적인 노력에 의하지 않고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부 각자가 자신의 의식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애정을 기반으로 한 단순한 교환이 아닌 어쩌면 무조건적인 '주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1. 부부조화 영역별 남녀 부부조화 점수 비교

영역	문항	남자평균	표준편차	여자평균	표준편차
함께함	28.우리는 가정경제권 결정을 같이 한다	3.70	±.89	3.72	±.93
	29.우리는 함께 계획한 일을 할 때 협력하여 한다	3.86	±.77	3.81	±.83
	35.우리는 서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빨리 풀려고 한다	3.70	±.92	3.63	±.92
	40.우리는 문제해결을 위해 이야기 한다	3.81	±.76	3.72	±.82
	41.우리는 돈이나 부에 대한 가치관이 비슷하다	3.53	±.90	3.46	±.97
	42.우리는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같이한다	3.73	±.78	3.76	±.82
	43.우리는 결혼생활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3.67	±.84	3.66	±.92
	44.우리는 같이 미래를 계획한다	3.78	±.78	3.74	±.91
	45.우리는 서로가 하는 일에 협조한다	3.80	±.76	3.82	±.87
포용	18.우리는 서로 배우자의 단점을 감싸준다	3.74	±.77	3.66	±.82
	20.우리는 상대방의 짜증을 잘 받아준다	3.27	±.96	3.29	±.96
	22.우리는 서로에게 자존심을 버린다	3.31	±.92	3.23	±.96
	23.우리는 의견이 다를 때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한다	3.57	±.76	3.51	±.83
	26.우리는 서로에게 겸손하게 대한다	3.45	±.82	3.38	±.83
	30.우리는 서로 싸울 일이 있어도 참는다	3.39	±.91	3.25	±.92
	31.우리는 싸울 때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3.37	±.93	3.36	±.91
	32.우리는 서로 양보한다	3.57	±.81	3.52	±.79
	33.우리는 싸울 때 심한 언행을 자제한다	3.79	±.94	3.64	±.95
	34.우리는 배우자가 충분할 때 대항하지 않고 참아준다	3.69	±.84	3.65	±.89
존중	19.우리는 서로 배우자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3.93	±.75	3.87	±.75
	24.우리는 서로를 신뢰한다	3.98	±.83	3.84	±.85
	27.우리는 서로를 평등하게 대한다	3.65	±.84	3.59	±.83
	57.나는 배우자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4.33	±.71	4.35	±.64
	58.우리는 서로의 사회생활에 대해 인정한다	3.96	±.60	4.00	±.73
	59.우리는 서로의 대인관계를 이해하려고 한다	3.92	±.77	3.89	±.73
	60.우리는 서로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한다	3.70	±.94	3.73	±.88
	61.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3.85	±.70	3.79	±.78
배려	8. 나는 배우자를 편안한 마음으로 대한다	3.88	±.86	3.91	±.88
	10나는 배우자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갖는다	4.12	±.79	3.97	±.84
	12. 나는 배우자의 약점을 자극하지 않는다	3.72	±.91	3.56	±.97
	13. 우리는 배우자를 편하게 해주려고 한다.	3.94	±.76	3.85	±.82
	14. 우리는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려고 한다	3.80	±.79	3.77	±.83
	16.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를 위로해 준다	3.91	±.78	3.84	±.85
긍정적 생활태도	1. 나는 일상생활에서 욕심부리지 않는다	3.40	±.89	3.37	±.80
	2. 나는 자신의 일에 충실하려고 한다	4.15	±.68	4.04	±.67
	3. 나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책임감을 갖는다	4.36	±.69	4.29	±.68
	4. 나는 가정 일에 신중하게 처신한다	4.03	±.77	4.02	±.75
	5. 나는 나쁜 것보다 좋은 일에 큰 의미를 둔다	3.86	±.84	3.89	±.87
	6. 나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90	±.85	3.81	±.84
	7. 나는 어려울 때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한다	3.85	±.70	3.89	±.78
무책임	9. 나는 배우자에 대해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3.52	±1.27	3.51	±1.24
	11.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	3.45	±1.17	3.22	±1.14
	17.우리는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관심이 없다	3.82	±.99	3.74	±1.02
	25.우리는 서로를 존중하지는 않는다	3.75	±.94	3.69	±.95
	36.우리는 부부싸움 후에 먼저 화해를 청하지 않는다	3.39	±1.03	3.36	±1.08
	37.우리는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다	3.38	±1.02	3.35	±1.02
	50.우리는 가사일을 함께 분담하지 않는다	3.12	±1.06	3.00	±1.01
	52.우리는 부부 둘 만의 시간을 갖으려고 하지 않는다	3.46	±1.02	3.37	±1.00
애정표현	53.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	4.11	±.82	3.97	±.87
	54.우리는 부부동반 모임에 함께 참석하려고 한다	3.79	±.85	3.71	±.95
	55.우리부부는 배우자가 원하는 애정표현을 하려고 한다	3.64	±.91	3.57	±.95
	56.우리는 부부관계 시 배우자의 기분을 잘 맞추어 준다	3.74	±.87	3.67	±.90
적극적 의사표현	15.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칭찬해준다	3.56	±.91	3.40	±.95
	38.우리는 서로에 대한 요구를 이야기 하는 편이다	3.48	±.81	3.50	±.83
	39.우리는 여가활동을 서로 상의해서 한다	3.48	±.92	3.33	±.96
	51.우리는 서로 하고 싶어하는 일을 도와준다	3.63	±.79	3.57	±.89
자녀관	62.우리는 자녀의 체벌에 대해 상의한다	3.56	±.92	3.47	±.93
	63.우리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비슷하다	3.79	±.81	3.66	±.87
	64.우리는 서로 자녀양육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3.87	±.88	3.82	±.88
섬김	21.우리는 양가부모에 대해 모두 잘 하려고 한다	3.79	±.78	3.70	±.84
	47.우리는 서로 다른 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3.50	±.86	3.47	±.85
	48.나는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고 한다	3.78	±.76	3.65	±.73

박민자(1992)는 지금까지의 부부관계에 대한 가족사회학적 접근을 ①부부관계의 긍정적이고 화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시각 ② 부부관계의 경쟁적이고 갈등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인데 이는 부부간에도 각자가 보상을 극대화하고 부담이나 비용을 극대화하려는 교환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두가지는 모두 기대에 대한 충족을 의미하고 있는데 결과는 결혼의 좋은 상태로의 유지이고 부부 각자에게 평등한 상태로 연결될 수 있고 '평등한 부부'관계로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다. 평등한 부부의 공통적 특징은 권리, 책임, 의무가 분담되고 개방적 대화, 상호존중, 우애등으로 (킴벌 1983) 다분히 서구적 색채가 강함을 알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부부에게서의 이러한 성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는 없다고 본다. 교환이론을 적용한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박미령, 1988)에서 배우자간에 잠재적으로 교환될 수 있는 자원목록은 ①사회경제적 영역이 돈, 사회적 이동, 특권으로 ② 애정적 영역이 애정, 사랑(사랑하는 것 - 사랑받는 것), 필요한 사람임을 느끼는 것(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것) ③ 표현적 영역이 이해, 감정적지지, 특별한 관심 ④ 동료적 영역이 사회적, 여가, 지적요인으로 ⑤ 성 ⑥ 서비스는 집안일, 아동양육, 개인적 서비스, 연결서비스(다른 사회체제와 가족을 연결시키는 것) ⑦ 권력으로 제시되어 결혼 생활의 배우자에 대한 기대요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본다.

결국 부부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서로에 대한 자기자신에 대한 기대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서로에 대한 기대를 아는 것이 시작점이 되고 이는 기존의 결혼만족이나 결혼적응으로 표현되는 그리고 주관성이 강조된 결혼의 질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과 관련된 다고 하겠다. Cheung(1999)은 오랜 결혼생활에 성별과 문화가 미치는 영향을 알기위해 5쌍의 홍콩중국계 이민부부와 5쌍의 유럽카나다계 부부에게 Dyadic Adjustment Scale을 이용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대화내용을 분석하여 의미있는 내용을 추출하였는데 결혼상태에서의 배우자간의 조화는 부부가 결혼만족을 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밝히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확인된 결혼만족과 부부조화의 상관성이 높은 부분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부부관계에서의 기대나 요구로 표현될 수 있는 요인들이 좋은 부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충족되어야 할 요구의 기본항목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항목과 관련되어 부부 각자의 이에 대한 인식과 추구행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좋은 관계형성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부부에 있어서의 부부조화의 개념에 위의 내용이 유사하게 포함되어 있음은 도구의 항목에서도 알 수 있다고 본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부부관계 개념과의 차이점과 같이 자신의 인식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점과 공동의식영역으로 다른 유사개념에서는 '의사결정'으로 표현되는 부분과 유사하기는 하나 '운명공동체'라는 의식이 기저에 내포된 점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고, 애정과 관심의 영역이 단순한 주고 받음이 아닌 배우자에 관련된 부분에 세심한 배려라는 기전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B. 행위자 중심으로 분류한 부부조화 수준의 비교

부부조화 도구의 영역은 양적 재확인 과정을 거쳐 12개 영역으로 확인되었으나 pile sorting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자기자신, 배우자, 공동의 영역 세가지로분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자 중심의 영역으로 부부조화 점수를 분류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해 보면, 성별, 연령, 종교 일치여부, 결혼형태, 가족주기에 따라서는 부부조화 수준의 차이가 없었다.(표 12) 그러나 가족구조에서 시가식구와 동거하는 경우 배우자 영역과 공동영역에서 조화점수가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외적인 상황에 의해 부부조화의 상태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수준에 따라 배우자영역과 공동의 영역에서 대학원 졸업 집단이 가장 높은 부부조화 수준을 나타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자신이 지각한 경제상태는 '상'인 경우 배우자영역과 공동영역에서 가장 높은 부부조화수준을 보이고 경제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부부조화 측정도구가 다른 부부관계 측정도구와 달리 '자기자신'에 관한 영역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일반적 특성 변수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다는 점에서 자기자신에 관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족구조와 교육수준, 경제상태가 미치는 부부조화에 대한 영향은 배우자나 공동의 활동에는 '통제의 기전'이 작용할 수 있는 내적, 외적 요인으로 고려될수 있다.

표 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위자 중심 영역별 부부조화 수준 비교

			수	평균	표준편차	F	P
성별	자기자신 영역	남	225	3.8039	.4059	.979	.328
		여	219	3.7628	.4767		
	배우자	남	225	3.6892	.4615	1.542	.124
	영역	여	219	3.6200	.4836		
	공동	남	225	3.6746	.4926	1.177	.240
	영역	여	219	3.6186	.5103		
연령(세)	자기자신	20-29	55	3.7925	.3968		
	영역	30-39	109	3.8052	.4416		
		40-49	213	3.8025	.4408	.341	.850
		50-59	47	3.7409	.4646		
		60↑	3	3.9804	.6179		
		Total	427	3.7964	.4380		
	배우자	20-29	55	3.7513	.4350		
	영역	30-39	109	3.6337	.4661		
		40-49	213	3.6714	.4813	.752	.557
		50-59	47	3.6125	.4354		
		60↑	3	3.6548	.4062		
		Total	427	3.6654	.4660		
	공동	20-29	55	3.7751	.4355		
	영역	30-39	109	3.6345	.5083		
		40-49	213	3.6467	.4979	1.103	.355
		50-59	47	3.5935	.5167		
		60↑	3	3.7895	.6903		
		Total	427	3.6552	.4965		
교육정도	자기자신	초등졸	19	3.8328	.4197		
	영역	중졸	42	3.6779	.4228		
		고졸	166	3.7562	.4226	1.197	.312
		대졸	161	3.8184	.4766		
		대학원졸	51	3.8270	.4028		
		Total	439	3.7831	.4415		
	배우자	초등졸	19	3.5263	.3826		
	영역	중졸	42	3.5111	.3930		
		고졸	166	3.6106	.4604	3.306	.011*
		대졸	161	3.7150	.5091		
		대학원졸	51	3.7822	.4537		
		Total	439	3.6556	.4745		
	공동	초등졸	19	3.4377	.5813		
	영역	중졸	42	3.5652	.4484		
		고졸	166	3.5812	.4721	3.736	.005*
		대졸	161	3.7120	7		
		대학원졸	51	3.7967	.4875		
		Total	439	3.6464	.5008		
종교	자기자신	일치	335	3.7882	.4436	.384	.701
	영역	불일치	109	3.7696	.4399		
	배우자	일치	335	3.6781	.4691	1.782	.076
	영역	불일치	109	3.5842	.4809		
	공동	일치	335	3.6672	.4973	1.472	.143
	영역	불일치	109	3.5847	.5119		
결혼형태	자기자신	중매결혼	168	3.7640	.4252		
	영역	연애결혼	247	3.8073	.4445	1.145	.319
		절충혼	27	3.6885	.5228		
		Total	442	3.7836	.4425		
	배우자	중매결혼	168	3.6220	.4456		
	영역	연애결혼	247	3.6900	.4947	1.984	.139
		절충혼	27	3.5331	.4259		
		Total	442	3.6546	.4737		
	공동	중매결혼	168	3.5956	.4904		
	영역	연애결혼	247	3.6817	.5057	1.480	.229
		절충혼	27	3.6413	.5194		
		Total	442	3.6465	.5013		

가족구조	자기자신	핵가족	382	3.7906	.4447		
	영역	시부모동거	42	3.6779	.4395	1.283	.280
		친정부모동거	11	3.8824	.4793		
		시가식구동거	4	3.9853	.2114		
	배우자	핵가족	382	3.6605	.4545		
	영역	시부모동거	42	3.5221	.5378	3.551	.015*
		친정부모동거	11	3.7532	.7535		
		시가식구동거	4	4.2679	.2712		
	공동	핵가족	382	3.6518	.4904		
	영역	시부모동거	42	3.5150	.5393	3.220	.023*
		친정부모동거	11	3.8373	.6872		
		시가식구동거	4	4.2105	.2469		
		Total	439	3.6485	.5031		
경제상태	자기자신	상	8	4.0515	.6703		
	영역	중상	69	3.8636	.4209		
		중중	237	3.7957	.4381	2.304	.058
		중하	109	3.7010	.4385		
		하	16	3.7757	.4496		
	배우자	상	8	4.1161	.6117		
	영역	중상	69	3.7707	.4509		
		중중	237	3.6611	.4691	4.614	.001*
		중하	109	3.5423	.4593		
		하	16	3.6853	.4897		
	공동	상	8	4.2171	.5734		
	영역	중상	69	3.7666	.4616		
		중중	237	3.6602	.4880	5.782	.000*
		중하	109	3.5138	.4921		
		하	16	3.6414	.5880		
		Total	439	3.6500	.5009		
가족주기	자기자신	신혼기	53	3.7514	.3611		
	영역	0-3	33	3.8770	.4962		
		4-6	23	3.7903	.3009		
		7-12	57	3.7895	.4661	.436	.880
		13-15	53	3.8169	.4216		
		16-18	121	3.7516	.4583		
		19-25	81	3.8003	.4620		
		26↑	23	3.7366	.5091		
	배우자	Total	444	3.7837	.4423		
	영역	신혼기	533	.7743	.4242		
		0-3	333	.6818	.5535		
		4-6	233	.6165	.3281		
		7-12	573	.6078	.5001	1.363	.219
		13-15	533	.7433	.4051		
		16-18	1213	.5853	.4856		
		19-25	813	.6790	.5118		
	공동영역	26↑	233	.5776	.4142		
		Total	444	3.6551	.4732		
		신혼기	53	3.7646	.4500		
		0-3	33	3.7895	.5230		
		4-6	23	3.5538	.3951		
		7-12	57	3.6362	.5016	1.262	.267
		13-15	53	3.5849	.4883		
		16-18	121	3.6246	.4976		
		19-25	81	3.6543	.5444		
		26↑	23	3.5263	.5486		
		Total	444	3.6470	.5016		

Houts(1997)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13년간의 종단연구결과 전반적으로 결혼만족과 역할유사성 간에 긍정적 관련성을 예견하는 가설이 지지되지 못했던 결과는 부부조화가 모든 부분이 유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서로 배려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점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건강한 가족의 특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배우자에 대해 더욱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고 부부관계에서 강한 애정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행복한 결혼에서 보여주는 역동적 특성은 존경이고, 존경은 서로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힘이며 가치있는 인간으로서의 확신을 심어준다고 보고한 (Curran, 1984) 연구와 애정표현이 결혼의 행복척도에 중요한 요인이고(송정아, 1995) 이는 행복한 결혼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표현은 자신의 배우자를 가장 좋은 동반자로 보고 있으며 배우자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Lauer & Lauer, 1985) 사전 연구들의 강조점을 본 연구의 결과인 부부조화 도구의 항목들과 이에 영향하는 것으로 확인된 변수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Gottman(1994)도 결혼이 문제해결을 위한 감정이입이나 비 방어적인 적극적인 경청, 그리고 동의와 승인을 향한 유머감각이 있다면 결혼생활에서의 갈등은 갈등 그 자체가 결혼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했다. 송정아(1995)의 연구에서도 건강한 결혼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대처해 나가며 야기된 문제로 가족구성원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한 결속력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부조화 항목에서 부부중 부인의 경우 일관되게 남편 보다 낮은 점수 분포를 보이고 있는 항목을 행위자 중심으로 분류하면 자기자신영역이 '나는 자신의 일에 충실하려고 한다.' '나는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 한다.' 2항목이었는데 자기발전과 관련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부분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가 비교적 낮은 수준임을 알게한다. 배우자 영역은 ' 나는 배우자의 약점을 자극하지 않는다' '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 로 결혼만족과 관련되어 남편들이 부인보다 비교적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점이고 약점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배려의 부분이 남편쪽이 높아 다른 연구들과의 유사성을 발견 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더 세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고 세심한 특성과 실제 배려한데 까지는 다른 것임을 추정해 볼 수 있

겠다. 공동역역에서 '우리는 가사일을 함께 분담하지 않는다'는 부인의 역할로 고정되어 있음으로 파생된 결과임을 짐작하게 하며 '우리는 여가활동을 서로 상의해서 한다.'는 부인 생각에 남편보다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느끼고 있음을 추정하게하고 또한 '우리는 부부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는 항목의 차이도 기대보다 낮은 상태임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비슷하다' 항목에서도 차이가 있었으나 위의 결과들도 .1이상의 차이를 보인 문항들만을 선별하여 확인한 결과들이고 보면 미미한 차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부부조화가 일방적인 결과가 아닌 두사람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부인이 비교적 부정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기대가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더 나은 결과도 이룰수 있다는 점이 특히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인 '자녀관'에서 자녀와의 갈 등을 완충할 수 있는 좋은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는 부부면담에서도 확인된 사항으로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질적자료와 양적자료의 유사성을 확인하게 하는 좋은 자료라고 본다. 또한 이와같은 결과들은 부부조화 유사개념들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은 점으로 보아 부부가 서로에게 배려하고 자신도 스스로 이를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C. 한국에서의 부부조화

본 연구에서 일 광역시에 거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조화 수준을 확인한 결과 부부조화 수준은 235점으로 최저값 157부터 최고값 314점까지 분포하였고, 남녀간의 차이는 세분화하여 보면 2개 영역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이 영역에 해당되는 문항수가 적어 전체 점수로는 차이가 없었다. 남자, 여자, 전체대상자의 점수분포가 정규분포를 하고 있었고 개발된 도구를 부부 중 1인에게 적용하여 한 부부의 부부조화 상태를 가늠 할 수 있는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 부부관계에 대한 접근으로 한국적 상황에서의 인간 삶의 이해를 위해 학자들이 제시한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고찰에서 보면 전통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내재하고 있는 사상적 토대로서 부부관계

를 대대(對待)의 관계로 보고 있어(강신표, 1985; 김인회, 1993 ; 우실하, 1998) 단순한 인간관계이상의 관계임을 입증해주는 논리로서 제시할 수 있다. 음양론의 '상대의 기대에 어떻게 화합할 것인가'가 자기를 없애는 작업이 아니라 각자의 존재는 독자적으로 지위를 점하면서 단순한 합이 아니라 한 차원 이상의 화합 즉 '조화'는 해석적 자기이해의 과정 속에서 터득될 수 있는 자기인식으로부터 출발되는 관계의 형성이 즉 '조화'라고 설명 할 수 있다. 나에 대한 순수한 이해로부터 타인에 대한 이해도 가능할 것이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결혼이 나의 삶을 나 스스로 만들어 가는 시작으로 본다면 부부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을 부부가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조화의 과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부부에 있어서의 조화는 부부 각자가 자신의 존재를 그대로 지위를 보유하면서 상대의 기대에 맞추어 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부부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도구들의 특성이 좀더 객관화되고 실제적인 현실성을 강조하고 있었다면 부부조화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좋은 부부관계는 지극히 각자의 의식수준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과정을 지나 안정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개념의 속성과 영역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한 평등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의 삶으로 일구어 나가는 변화하되 발전하는 나의 모습과 배우자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상대를 배려하는 가운데 자신의 이해도 구할 수 있고 서로의 가치를 더해갈 수 있는 ,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지적한 "문항"이 "배우자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추구할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할 때 배우자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것인 큰 것이 아닌 나를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소박한 마음임을 알게 한다. 그러나 남편들에 비해 부인의 경우 부정적 경향을 보이는 점은 단지 여성이라는 점으로 일축 해버리기 보다는 부부 각자가 나와 배우자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통해 서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가족 전체의 행복과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면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스스로 또는 간호사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의 구성원리로 새롭게 독자적인 논리의 세계와 철학적 세계관을 형성하였으며, 이는 또한 음과 양으로 나누어 질 수 없는 각각은 독자의 지위를 그대로 지니면서 음과 양에서 즉 하나하나가 음양즉 둘이 되지 않고 셋으

로 분화된다는 논리는 체계론적인 숫자의 의미보다 통합이나 체계론적인 접근방식이 가능함을 발견하게 한다. 이는 각각의 존재는 각각의 특성과 독자성을 보유하면서 통합되어 확대된 개념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간호학에서 인간이해에 있어서 기본 철학적 입장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한국적 간호상황은 물론 인간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논리적 입장의 틀을 제시하는데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D. 부부조화도구의 간호학에의 적용

1. 개발된 부부조화 도구의 사용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부부조화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과 영역에 해당되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조화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영역은 특징적으로는 12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의 영역을 중심으로 하부영역의 점수가 각 영역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현장에서는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조화 수준을 부부 중 한사람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고, 부부간의 부부조화 점수의 차이는 전체점수와 하부 영역들 간의 각각의 차가 부부 두사람 간의 서로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으로 진단할 수 있어 부부 스스로가 대화를 통해 부부간의 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고, 간호사가 부부공동 또는 개인에 대한 상담을 위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지표는 부부관계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목표설정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을 도모할 수 있다.

부부조화개념은 간호의 기본단위가 되는 인간과 가족의 접근에서 간호사가 실제적이고 일상사에서 간과할 수 있는 중요한 가족내의 인간관계 기본상태를 접근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간호활동의 목적인 '자기건강관리의 자조능력의 향상' 측면에서 볼 때 부부에게 있어 하나의 건강증진분야로 개발될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의 자기성장과 함께 부부가 함께 이룩해나가는 가족의 건강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 간호현장

에서 개인이나 부부를 위한 접근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녀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인해 자칫 소외되고 간과될 수 있는 부모, 배우자 이기 이전에 자신의 인간성 존중의 차원에서도 부부가 함께 가질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간호사가 간호활동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데서 새로운 간호활동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건강의 개념이 복합적이고 주관성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인 생활의 패턴에 영향하는 특성으로 평생건강관리차원의 건강증진적 접근이 지역사회를 단위로 한 간호활동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데 일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간호의 주개념인 인간의 이해에 한 연구분야가 될 수 있고 지역주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의미있고 심층적인 신뢰를 통해 접근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간호 대상자 간호사에게 더욱 접근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Ⅴ.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는 간호가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이해에 바탕을 둔 Human-practice science로 본질을 찾아야 하며 인간 삶의 기본이 되는 가족단위속에서 중심이 되는 부부관계의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를 단위로 한 간호활동에서 가족의 건강이 중요한데,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하면서 가족을 유지하는 힘이 좋은 부부관계를 이룰 때 가능하다고 본다. 부부가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속성을 찾고 부부조화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실제 간호현장에서 부부를 간호대상으로하여 부부조화를 측정하여 부부의 건강증진을 위한 하나의 지표로서 부부조화를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는 네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개념개발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김혜숙 과 Schwartz & Bacott, D. 의 Hybrid method(1993)의 과정을 일부 활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문헌고찰을 통해 부부관계를 다룬 개념들을 정리하여 좋은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개념들의 속성을 찾았는데, 주로 결혼만족, 결혼적응, 결혼의 질, 건강한 결혼 개념을 통해 설명되고 있으며, 이들 개념들이 유사함으로 인해 서로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4가지의 개념들을 conceptual mapping 한 결과 이들에 영향하는 변수들로 직업, 수입, 사회경제적 수준, 교육, 연령, 자녀, 가족주기, 성별, 결혼형태였고, 매개변수들로는 가족가치관, 자아인식수준, 성생활, 우애성, 수입의존도, 역할수행이었다. 이들의 개념들간의 유사성을 정리한 결과 좋은 부부관계 개념의 속성은 대화, 공유, 통합, 부부관계만족, 역할수행, 적응, 헌신, 애정, 의사결정, 존경, 가치관, 갈등, 부모만족으로 총 13가지의 속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좋은 부부관계의 속성과 기존에 사용되는 부부조화 속성간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부부조화 영역을 도출하였는데 의미별 행위 중심의 속성은 일체성, 교류, 배려, 존중, 만족의 5가지로 이에 대한 행위자 중심의 속성인 자기자신, 배우자, 공동영역의 세가지로 재분류되는데 이를 부부조화개념의 틀

로 도출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현장작업의 단계로 부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는데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고 추천되는 부부 7쌍을 대상으로 하였고 면담은 개인 면담과 부부동시면담을 모두 실시하고 한 부부당 3회에서 5회에 걸쳐 면담이 실시되어 총 28회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현재 갈등상태로 부부불화가 있는 1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반대사례에 대한 면담도 실시하여 사례간의 면담자료에서 의미있는 자료의 도출상태를 비교하였다. 이는 포괄적으로 부부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시도되었고 면담자료에서 의미있는 자료의 차이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면담자료에서 도출된 의미있는 부부조화 개념들은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면담자료에서 도출된 속성들은 인내, 인격적 대우, 가치추구의 유사성, 갈등대처, 가치인정, 적응, 헌신, 긍정적 생활태도,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 솔직한 대화, 배우자에 대한 배려, 애정표현으로 총 12개가 확인되었다. 연구자에 의한 개념의 분류와 속성확인 과정에서 간주관성을 확립하기 위해 면담자들에 의한 Pile sorting작업을 의뢰하여 개념의 분류는 차이가 있었으나 속성의 명명은 연구자와 유사한 점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단계는 부부조화 도구의 문항개발 단계로 부부면담에서 도출된 개념들과 문헌에서 확인된 개념들을 중심으로 문항을 확정하여 총 76문항을 개발하였다. 문항개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와 일반 부부들에 의한 내용타당도 확인 작업을 거쳤고, 26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Pilot test를 거쳐 의미가 같거나 중복되고 모호한 문항을 수정하고 삭제하여 64개 문항을 확정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양적 재확인과정을 통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 .9547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고 구성타당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Eigen value 1.0이상인 총 14개 요인이 산출되고 전체 약 60%를 설명하는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Varimax rotation 결과 14개 요인 중 12개 영역에 개념이 분포하였고 11,12영역은 각각 1개씩의 단일문항으로 한 영역이 이루어 지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부부조화를 나타내는 요인들의 영역은 총 12개로 부정문항으로 이루어진 1개 영역과 단일 문항으로 이루어진 2개의 영역을 제외하고 9개의 영역은 함께 함, 포용, 존

중, 배려, 긍정적 생활태도, 애정 표현, 적극적 의사표현, 자녀양육, 적응으로 명명하였다.

개발된 부부조화 도구의 특징은 '자기인식'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최근 부부관계 연구에서 나타나는 인지변수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부분인데 부부조화 도구에서는 이를 도구의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 하겠다. 그리고 외국 도구와 다른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배려' 영역은 속성은 엄밀하게 보면 자아의식과 관련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부부조화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부부 중 한 사람을 통해서 부부조화 수준을 확인 할 수 있는 부부공동형 도구개발이 이루어져, 이 도구를 지역사회 간호현장에서 부부건강증진을 위한 간호활동의 지침으로 또는 부부상담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기존의 질병예방과 문제중심의 간호가 아닌 건강과 함께 하는 긍정적인 건강증진 촉진자로서 간호사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부각시키면서 아울러 스스로 건강할 수 있는 계기를 부부각자와 모두에게 간호가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B.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과정으로 결과에 대한 확대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새로운 부부관계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도구로 계속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1. 개발된 부부조화 측정도구를 다른 부부들에게 적용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2. 부부간에 차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부부조화 도구의 영역별 비중을 반영하여 도구의 타당성을 높이는 작업을 시도한다.

3. 부부조화를 성장하는 부부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가족주기에 따른 부부조화 수준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부부조화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중재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

참고문헌

강신표(1985) *조선조 전통문화에 있어서의 리더십-어른 father-man*, 서울, 현암사.

강혜규(2000) *생애주기별 보건복지시스템 구축*, 보건복지포럼, 40, 25-31.

고선주(1996) *부부취업가족의 부모기 전환후결혼적응*,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고선주(1997): 취업부부의 부모기 전이후 부모로서의 긴장감,지배감,성역할태도와 결혼적응 : *대한가정학회지* 117;pp.17-32 .

권정혜, 채규만(1998)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김득성(1987) Spanier의 결혼적응척도에 관한 연구(II),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연구보고 제 13집*, 1-24.

김모임 외(1996) *대상자 중심의 지역사회간호학*, 현문사.

김수지,김의숙(1985) *간호과학 연구*, 수문사.

김양희(1993) *한국 가족의 갈등 연구*,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김인회(1993) *한국 무속 사상 연구*, 서울, 집문당.

김애경(1994) *성인의 건강개념과 건강행위에 대한 서술적 연구*, 간호학회지, 24(1), 70-84.

김재은(1983) *한국가족의 심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김혜선(1992) *배우자 선택과정과 결혼적응도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노치영(1996) *한국 부부의 부부문제해결과정* : 자아상태, 문제인지, 문제해결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찬미(1986) *도시주부의 결혼만족도와 이혼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방매륜(1993) *가족, 건강, 간호*. 방매륜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모음집, 36-57.

변영순(1988) 건강개념의 의미에 관한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18(2), 19-89-196.

서병숙(1997) *결혼과 가정*, 서울, 교문사

송정아(1995) 한국도시 부부의 건강한 결혼 관련 변인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p.69-78

송정아(1996) 중년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우실하(1998) *전통문화의 구성원리*, 소나무,

양순옥(1989) *한국인의 건강에 대한 실제 개념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여성한국사회연구회(1994)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 제 2 장 부부관계의 인식에 관한 연구(권희완), 2판, 사회문화 연구소.

이광규(1994) *한국 전통문화의 구조적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광규(1996) *현대 한국가족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동원(1988) *한국 도시부부의 결혼의 질*,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미숙(1985) 자녀의 성, 연령, 수와 주부의 성역할 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이미숙(1990) 한국에서의 결혼만족 연구에 대한 고찰 및 평가;1968~1990.6까지의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성심여대생활과학연구논집* 10:1,pp.27-71

이은옥, 임난영, 박현애(1998) *간호.의료연구와 통계분석*, 수문사, 279.

이인수, 유영주(1986) 결혼만족도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정현숙(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 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 가정학회지*, 35:1, 191-204.

조남국(1999) *한국사상과 인간존중*, 교육과학사, 199-203.

한국가족학연구회(1993) *가족학연구의 이론적 접근* : 미시이론을 중심으로, 서울, 교문사.

외국논문

Adams, B.N.(1980) *The Family ; Sociological interpretation*, 3rd. ed. Rand Mc 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1980.

Bowman, H.A.(1960) *Marriage for Moderns*, 5th ed. , N.Y. : Mc Graw- Hill Book Co., 286-287.

Burgess, E.W. & Locke, H.J.(1960) *The Family -from Institution to Companionship*, 2nd ed., N.Y. : American Book Co.. 383-384.

Burr, W.R., Hill, R., Nye, F.I. & Reiss, I.L.(1979)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2, N.Y. : The Free Press.

Cheung, Maria Yip Ling (1999) *Impact of gender and culture : contributing factors to satisfactory long-term marriages*, Wilfrid laurier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Cuber, J. & Harroff, P.(1965) *Sex and the significant Americans*, Baltimore : Penguin Books.

Curan, D.R.(1983) *Traits of a healthy family*, N.Y. : Ballantine Books.

Gottman, J.(1994) *Why marriage succeed or fail*. Simon and Schuster.

Gullotta, T.P., Adams, G.R., & Alexander, S.J. (1986) *Today's marriage and families ; Wellness approach* , Brooks/ Cole Publishing Co., 1986.

Houts, Renate Marguerite(1997) *The long-term significance of role compatibility on marital relationships*,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Lauer, J. & Lauer, R.(1985) *Psychology Today*, June. 22-6.

Lenthall, G.(1977) Marital satisfation and Marital 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Counselling*, 3 : 25-32.

Levinger, G. (1964) Task and social behavior in Marriage. *Sociometry* 27 : 433-448.

Lewis, R.A. & Spanier, G.B. (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Burr , W.R., Hill, R., Nye, F.I.& Reiss, I.L.(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Vol. 1). N.Y. : The Free Press.

Notarius, C. & Markman, H.(1993) *We can work it out : Making sense of marital conflict,* Putnam.

Olson et al (1983) *Family; What makes them work*, Sage Publication, Inc., 1983.

Roach, A.L., Trazier L.P. & Bowden, S.R.(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MF,* 43 : 537-58.

Rubin, L.(1976) *Worlds of Pain*, Basic Book Inc.

Skolnick, A.(1983) *The Intimate Environment : Exploring Marriage and the Family, Boston* : Little Brown Co.

Spanier, G.B.(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 New Scale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iar Dyads, *JMF,* 38 : 15-28.

Spanier, G.B. & Lewis, R.(1980) Marital Quality : A Rewiew of the Seventies, *JMF*, 42 : 96-110.

Susan C.W. & A. Kimball Romney (1988) *Systematic data collection,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vol .10, SAGE, 6-42.

ABSTRACT

The development of measurement tool for husband & wife compatibility

Kim, Hyun Li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Family health is very important in community health nursing. As the function and role of family is changing, good couple relationship plays an essential part in maintaining the family. First. I tried to make a definition of the real meaning of good couple relationship and develop a tool to measure the husband & wife compatibility degree. That tool can be used as an index of good marital relationship and can be used to improve individual & couple's health in real nursing situation.

The research was composed of four parts, literature review, interview, developing the scale and quantitative test. I referred the concept development method of Kim, Hyesook and Schwarts & Bacott D. , Hybrid method.

The first part is literature review to make sure the attributes of good husband & wife relationship.

Husband & wife relationship is mainly explained in terms of marital satisfaction, marital adjustment, quality of marital life, and healthy marriage. These four concepts are proved to be used in confusion due to the similarities among them. The conceptual mapping of these four concepts results in confirming the variables and parameters of them. The variables are occupation, income, socio-economic status, education, age, children, family cycle, sex, and type of marriage. The parameters are family's sense of valuation of self-recognition, sex life, companionship, degree of income dependency, and role performance. As a result of rearrangement of these concepts considering their similarities, I can confirm 13 attributes of a good husband & wife relationship

and they are conversation, sharing, integration, satisfaction of husband & wife relation, role performance, adaption, devotion, affection, decision making, respect, sense of valuation, conflict, and satisfaction as parents.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se attributes of good couple relationship with those of the established husband & wife compatibility, I drew the realm of husband & wife compatibility and assumed identity, expectation recognition, consideration, respect, equality, and subjective recognition as the frame of husband & wife compatibility.

The second part is field confirmation, conducting in-depth interview of seven couples recommended as being on good couple relation. Both individual interview and couple interview were conducted and 28 interviews in total were conducted. One couple suffering from trouble was interviewed to have the opposite case in order to ensure the meaningful data. There's no meaningful differences between the opposites, so the concepts of husband & wife compatibility drawn from the interview data were proved to be reliable.

12 attributes were drawn from the interview data; patience, treat with respect, similarities in their sense of value, coping with a conflict situation, value recognition, devotion, positive attitude toward life, positive attitude toward spouse, open conversation, consideration of spouse, and affection expression. After the Pile sorting to ensure the inter-subjectivity, I can find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concepts naming of the researcher and those of the interviewees with little differences.

The third part is questionnaire development to make husband & wife compatibility index and I get 76 questionnaires through concepts drawn from the couple interview and literature review. 64 questionnaires in total were established by the experts' validation process and overlapped or obscure questionnaires were removed through Pilot test. Quantitative reconforming study was performed to ensure the reliability and adequacy of the tool for husband & wife compatibility to 482(242 couples).

The reliability of the measuring tool is high showing Cronbach α coefficient .9547. In the component validity, 14 elements with over 1.0 Eigen value were produced through elements analysis and showed 60% high explanatory power. Concepts were distributed in 12 realms out of the 14 dimensions and 11th and 12th realm have only one component each. The 9 realms of husband & wife

compatibility components were named togetherness, understanding, respect, consideration, positive way of living, affection expression, active expression, children breeding, and adaptation.

Even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around scores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level of husband & wife compatibility , there was no statistically meaninhful difference on the whole. The distribution figures of compatibility score of husband & wife unitshow similiar shapes. The average score was 235, the lowest 157, and the highest 314 in the figure.

The developed tool for the husband & wife compatibility in this research puts a big portion on the 'self-recognition' and it has the same trend with the recent couple researches showing high influence of recognition variables while it has still different classification of 'self-recognition' into the tool realm.

I tried to develop a tool for husband & wife compatibility measurement that would suit for the Korean situation and I believe it can be used as a guideline, especially for couple counselling to improve the couple health in community health nursing situation. By recovering and bringing up the image of nurses as positive health facilitators, not as disease prevention or problem oriented ones, nurses can provide couples with chances of getting healthier and others as well.

I'd like to make suggestions as follows;

1. Make use of the developed tool for husband & wife compatibility.
2. Raise the validity of the tool by ensuring the co-relationships of couple differences with other concepts.
3. As husband & wife compatibility can be considered as a growing relationship, the levels of husband & wife compatibility according to the family cycle should be studied in depth.
4. Ensure the validity of the husband & wife compatibility tool when it is done for the couples in conflict situation.
5. Method of mediation to improve the levels of husband & wife compatibility should be designed.

Key words: husband & wife compatibility

부록 1. 부부관계 측정도구의 하부요인

년도	연구자	측정개념	요인		
1929	Hamilton	결혼만족			
1938	Terman	결혼만족	재정문제,자녀양육, 애정,오락,인척관계, 종교,동료관계, 식사예절, 관습, 인성관,	10개요인	
1957	Landis	결혼만족	사회활동,자녀양육, 성, 애정문제, 인척관계, 종교, 동료관계,	7개요인	
1960	Blood & Woolfe	결혼만족	재정문제, 자녀양육, 성, 인척관계,종교,여가, 성격, 역할,	8개요인	
1970	Burr	결혼만족	재정문제, 자녀양육, 성, 사회활동, 가사작업, 동료감,	6개요인	
1975	Roach	결혼만족	결혼생활의 전반적 만족, 부부의 사회적, 심리적 동료감, 결혼생활의 애로요인, 부부관계의 불만요인, 부부의 합당한 태도, 결혼생활에 대한 인지,	(Bowden 1977, 타당화연구) 6개요인	1986년 한국판 척도 타당화연구
1976	Spanier	결혼적응	애정표현, 부부간 의견일치, 결속력, 만족도		
1976	Snyder	결혼만족	경제문제, 자녀양육의 불일치,자녀관계,성생활,시가관계, 전반적 결혼만족도, 정의적 의사소통, 문제해결 의사소통, 동료감, 관습, 원가족 문제	9개요인	(2개요인제외)
1981	Schumm et al	결혼만족	전반적인 결혼에 대한 인지, 배우자에 관한 인지, 배우자와의 관계에 관한 인지, 자기자신에 대한 인지	4개요인	1989개정 제4요인 추가

부록2. 한국에서 사용된 부부관계 측정도구

년도	연구자		요인		
1977	김명자	결혼만족	경제, 자녀관계, 성생활, 자아개념, 건강, 여가활동, 가사협조,주택관계동료감, 성격적응,	10개요인	
1979	유영주	결혼적응	경제활동, 자녀양육, 애정및 성,친척관계,사회활동, 생활태도, 가사처리, 성격	8개요인	
1982	이옥진	결혼만족	일치도, 불일치의 해결방법, 동료감, 주관적만족, 배우자에 대한 불만사항, 현 배우자 재선택 여부, 이혼의 고려, 현재의 결혼생활 만족도	8개요인	
1985	이미숙	결혼만족 (결혼적응)	부부관계만족도(애정 및 성, 동료감, 남편의 가족 역할 수행) 시가관계	4개요인	Spanier 와 Nye et al도구참조
1986	임정빈, 정해성	결혼만족	가정의 경제상태,자녀관계. 시가관계, 남편에 대한 만족, 가족생활, 자아상, 남편의지지, 직업만족도	8개요인	
1987	이정연	결혼만족	경제문제, 자녀양육의 불일치, 자녀관계, 성생활, 시가관계, 동료감, 정의적 의사소통, 문제해결의사소통, 전반적 결혼만족도	9개요인	Snyder (2개요인삭제,시가관계 추가)
1989	송영란	결혼만족	결혼생활의 전반적인 만족, 부부의 사회적, 심리적 동료감, 결혼생활 전반의 애로요인, 부부간의 불만요인, 배우자에 대한 존중감, 결혼생활에 대한 인지	6개요인	Roach 도구 재구성
1995	조정문	결혼만족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배우자로서 남편(아내)에 대한 만족, 남편(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3개요인	Schumm도구참조
1997	정현숙	결혼만족	KMSS 단일 차원의 결혼만족도 척도	4개 요인	Schumm 등의 도구개정
1998	권정혜와 채규만	결혼만족	경제적 갈등척도,자녀불만족 척도, 자녀양육갈등 척도, 원가족 문제 척도,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척도, 성적 불만족 척도,관습적 성역할 대도 척도,비일관적 반응척도, 관습적 반응척도, 전반적 불만족 척도,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척도,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척도, 공격행동 척도, 공유시간 갈등척도,	14개요인	Snyder

부록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	
직업	전문직	136	±28.2	
	관리직	23	±4.8	
	사무직	57	±11.8	
	생산직	24	±5.0	
	판매직	29	±6.0	
	서비스직	41	±8.5	
	주부	128	±26.6	
	무직	44	±9.1	
	Total	482	100.0	
교육 수준	초등졸	19	±3.9	
	중졸	45	±9.3	
	고졸	182	±37.8	
	대졸	175	±36.3	
	대학원졸	56	±11.6	
	Total	477	99.0	
경제 상태	상	10	±2.1	
	중상	76	±15.8	
	중중	256	±53.1	
	중하	116	±24.1	
	하	19	±3.9	
	Total	477		99.0
가족주기 자녀연령	신혼기	62	±12.7	
	0-3	32	±6.8	
	4-6	28	±5.8	
	7-12	58	±12.0	
	13-15	62	±12.9	
	16-18	133	±27.6	
	19-25	83	±17.2	
	26	24	±5.0	
	Total	482		100.0
가족 형태	핵가족	412	±85.5	
	시부모동거	46	±9.5	
	친정부모동거	14	±2.9	
	시가삭구동거	4	±.8	
	친정식구동거	1	±.2	
	Total	477		99.0
종교 일치	일치	363	±75.3	
	불일치	119	±24.7	
	Total	482	100.0	
결혼 형태	중매	186	±38.6	
	연애	265	±55.0	
	절충	29	±6.0	
	Total	480		99.6

부록 4. 부부조화요인추출

	Initial Eigenvalues			Extrac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Rota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Component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1	18.643	29.129	29.129	18.643	29.129	29.129	5.184	8.100	8.100
2	3.187	4.979	34.109	3.187	4.979	34.109	5.046	7.885	15.985
3	2.950	4.609	38.718	2.950	4.609	38.718	4.054	6.334	22.319
4	1.997	3.120	41.838	1.997	3.120	41.838	3.700	5.782	28.101
5	1.649	2.577	44.415	1.649	2.577	44.415	3.581	5.596	33.697
6	1.478	2.310	46.725	1.478	2.310	46.725	3.410	5.329	39.026
7	1.379	2.155	48.879	1.379	2.155	48.879	2.487	3.887	42.912
8	1.249	1.951	50.831	1.249	1.951	50.831	2.397	3.746	46.658
9	1.128	1.762	52.592	1.128	1.762	52.592	2.364	3.694	50.352
10	1.122	1.753	54.346	1.122	1.753	54.346	1.583	2.474	52.826
11	1.101	1.721	56.067	1.101	1.721	56.067	1.532	2.394	55.220
12	1.088	1.701	57.767	1.088	1.701	57.767	1.312	2.050	57.270
13	1.050	1.640	59.407	1.050	1.640	59.407	1.208	1.887	59.158
14	1.007	1.573	60.980	1.007	1.573	60.980	1.166	1.822	60.980
15	.988	1.543	62.524						
16	.964	1.506	64.029						
17	.936	1.463	65.493						
18	.903	1.410	66.903						
19	.856	1.338	68.240						
20	.854	1.334	69.574						
21	.829	1.295	70.869						
22	.769	1.202	72.070						
23	.755	1.180	73.250						
24	.733	1.146	74.396						
25	.727	1.135	75.532						
26	.687	1.074	76.606						
27	.651	1.017	77.623						
28	.643	1.005	78.628						
29	.622	.971	79.599						
30	.614	.959	80.558						
31	.588	.919	81.477						
32	.578	.904	82.381						
33	.543	.849	83.230						
34	.537	.840	84.070						
35	.529	.827	84.897						
36	.511	.798	85.695						
37	.497	.776	86.471						
38	.488	.762	87.233						
39	.468	.732	87.965						
40	.462	.721	88.686						
41	.438	.685	89.371						
42	.429	.670	90.041						
43	.414	.647	90.689						
44	.406	.634	91.323						
45	.387	.605	91.929						
46	.378	.591	92.520						
47	.354	.554	93.074						
48	.341	.532	93.606						
49	.335	.523	94.129						
50	.327	.512	94.641						
51	.324	.506	95.147						
52	.309	.483	95.630						
53	.302	.471	96.101						
54	.287	.448	96.549						
55	.271	.424	96.973						
56	.249	.389	97.362						
57	.246	.385	97.747						
58	.238	.372	98.119						
59	.226	.354	98.473						
60	.215	.336	98.809						
61	.201	.314	99.123						
62	.201	.313	99.436						
63	.183	.286	99.722						
64	.178	.278	100.000						

부록 5. 부부조화개념의 중요도

	수	평균	표준편차
나는 일상생활에서 욕심부리지 않는다	204	3.31	.95
나는 자신의 일에 충실하려고 한다	204	4.22	.81
나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책임감을 갖는다	204	4.54	.70
나는 가정 일에 신중하게 처신한다	204	4.21	.76
나는 나쁜 것보다 좋은 일에 큰 의미를 둔다	204	3.79	1.02
나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4	3.72	.93
나는 어려울 때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한다	204	3.70	.96
나는 배우자를 편안한 마음으로 대한다	204	3.97	.91
나는 배우자에 대해 꼭 필요한 존재라 생각지 않는다	204	2.64	1.49
나는 배우자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갖는다	203	4.13	.82
나는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지않다	203	2.56	1.25
나는 배우자의 약점을 자극하지 않는다	203	3.69	1.03
우리는 배우자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한다	203	3.93	.84
우리는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려고 한다	203	3.87	.82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칭찬해준다	203	3.78	.89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를 위로해 준다	203	3.99	.91
우리는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관심이 없다	203	2.28	1.34
우리는 서로 배우자의 단점을 감싸준다	201	3.84	.85
우리는 서로 배우자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201	4.04	.84
우리는 상대방의 짜증을 잘 받아준다	201	3.47	.89
우리는 양가부모에 대해 모두 잘 하려고 한다	201	4.10	.80
우리는 서로에게 자존심을 버린다	201	3.56	.96
우리는 의견이 다를 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한다	200	3.90	.86
우리는 서로를 신뢰한다	201	4.27	.80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	201	2.44	1.41
우리는 서로에게 점손하게 대한다	200	3.52	.92
우리는 서로를 친절하게 대한다	201	3.68	.87
우리는 가정경제권 결정을 같이 한다	201	3.82	.91
우리는 함께 계획한 일을 할 때 협력하여 한다	200	3.97	.90
우리는 서로 싸울 일이 있어도 싫다	201	3.34	1.05
우리는 싸울 때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201	3.42	1.06
우리는 서로 양보한다	201	3.65	.92
우리는 싸울 때 심한 언쟁을 자제한다	201	3.94	.87
우리는 배우자가 흥분할 때 대항하지 않고 참아준다	201	3.72	.91
우리는 서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빨리 풀려고 한다	201	3.79	.94
우리는 부부 싸움 후에 먼저 화해를 청하지 않는다	201	2.76	1.31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다	198	2.96	1.32
우리는 서로에 대한 요구를 이야기 하는 편이다	198	3.66	.80
우리는 여가활동을 서로 상의해서 한다	198	3.61	.91
우리는 문제해결을 위해 이야기 한다	198	4.01	.83
우리는 돈이나 부에 대한 가치관이 비슷하다	198	3.68	.90
우린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같이 한다	198	3.93	.82
우리는 결혼생활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198	3.95	.86
우리는 같이 미래를 계획한다	198	4.04	.85
우리는 서로가 하는 일에 협조한다	198	3.93	.89
우리는 말을 안해도 서로가 원하는 것을 안다	198	3.62	.91
우리는 서로 다른 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198	3.65	.86
나는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고 한다	198	3.85	.83
나는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한다.	198	4.01	.80
우리는 가사일을 함께 분담하지 않는다	198	2.76	1.20
우리는 서로 하고 싶어하는 일을 도와준다	198	3.56	.94
우리는 부부 둘 만의 시간을 갖으려고 하지 않는다	198	2.59	1.35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	198	4.32	.83
우리는 부부동반 모임에 함께 참석하려고 한다	198	3.75	.95
우리는 배우자가 원하는 애정표현을 하려고 한다	198	3.91	.82
우리는 부부관계 시 배우자의 기분을 잘 맞추려한다	198	3.99	.86
나는 배우자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198	4.55	.65
우리는 서로의 사회생활에 대해 인정한다	199	4.02	.80
우리는 서로의 대인관계를 이해하려고 한다	199	3.95	.83
우리는 서로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한다	199	3.88	.88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199	3.93	.82
우리는 자녀의 체벌에 대해 상의한다	197	3.67	.92
우리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비슷하다	197	3.79	.90
우리는 서로 자녀양육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197	4.02	.84

인사말씀

바쁘신 중에도 이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 부부조화에 관한 연구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며, 이 연구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의 솔직한 응답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설문지의 내용은 연구를 위한 통계적 분석에만 이용될 것이며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작성해 주실때는 한 문장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라며, 배우자와 상의하시는 일이 없이 작성하여 회신봉투에 봉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김 현 리

Ⅰ. 귀하에게 해당되는 곳에 O 표 하시거나 직접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을 표기하십시오. 남_____ 녀_____
2. 현재 연령은 만 몇 세입니가? 만 _____ 세
3. ① 초등학교 졸업____② 중졸____③ 고졸____④ 대졸____⑤ 대학원 졸업____
4. 직업을 표기하십시오.
   * 무직_____ 시간제_____ 전일제_____
   * 전문직___관리직___ 사무직___ 생산직___ 판매직___서비스직___주부___
5. 가정의 경제상태는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____② 중상____③ 중중____④ 중하____⑤ 하____
6. 결혼하신 기간은 만 몇 년 입니까? _____
7. 자녀수는 몇 명 입니까? _____첫 자녀의 연령은 ? 만 _____세
8. 현재 귀하의 가족형태를 표시하십시오.
   ①핵가족____② 시부모와 동거____③ 친정부모와 동거____
   ④시가식구와 동거 ____⑤ 친정식구와 동거____
9. 결혼형태는 어느 것입니까?
   중매결혼_____ 연애결혼_____ 절충혼_____
10. 종교 여부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남편 _____ ② 부인 _____
11. 부부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문제가 있습니까?
    (1) 아니오____ (2) 예_____ 있다면 무엇입니까?_____
12. 귀하의 부부관계에 해당하는 곳에 표기하여 주십시요.

항목	대단히 불만족 1	매우 불만족 2	조금 불만족 3	보통 4	조금 만족 5	매우 만족 6	대단히 만족 7
당신의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배우자로서 남편(아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남편(아내)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배우자로서 자기자신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Ⅱ. 아래의 항목을 읽으시고 좋은 부부관계를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가)항에 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고, 귀하의 부부관계 상태를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우 중요하다 (5), 중요하다(4), 보통(3), 중요하지 않다(2), 매우 중요하지 않다(1)

	(가) 중요도 5 4 3 2 1	매우 그렇다 5	그렇다 4	보통이다 3	그렇지 않다 2	매우 그렇지 않다 1
나는 일상생활에서 욕심부리지 않는다						
나는 자신의 일에 충실하려고 한다						
나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책임감을 갖는다						
나는 가정 일에 신중하게 처신한다						
나는 나쁜 것보다 좋은 일에 큰 의미를 둔다						
나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려울 때 스스로를 위로 하기도 한다						
나는 배우자를 편안한 마음으로 대한다						
나는 배우자에 대해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배우자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갖는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						
나는 배우자의 약점을 자극하지 않는다						
우리는 배우자를 편하게 해주려고 한다						
우리는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려고 한다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칭찬해준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를 위로해 준다						
우리는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관심이 없다						

	(가) 중요도 5 4 3 2 1	매우 그렇다 5	그렇다 4	보통이다 3	그렇지 않다 2	매우 그렇지 않다 1
우리는 서로 배우자의 단점을 감싸준다						
우리는 서로 배우자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우리는 상대방의 짜증을 잘 받아준다						
우리는 양가부모에 대해 모두 잘 하려고 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자존심을 버린다						
우리는 의견이 다를 때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한다						
우리는 서로를 신뢰한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서로에게 겸손하게 대한다						
우리는 서로를 평등하게 대한다						
우리는 가정경제권 결정을 같이 한다						
우리는 함께 계획한 일을 할 때 협력하여 한다						
우리는 서로 싸울 일이 있어도 참는다						
우리는 싸울 때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 양보한다						
우리는 싸울 때 심한 언행을 자제한다						
우리는 배우자가 흥분할 때 대항하지 않고 참아준다						
우리는 서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빨리 풀려고 한다						
우리는 부부싸움 후에 먼저 화해를 청하지 않는다						

	(가) 중요도 5 4 3 2 1	매우 그렇다 5	그렇다 4	보통이다 3	그렇지 않다 2	매우 그렇지 않다 1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요구를 이야기 하는 편이다						
우리는 여가활동을 서로 상의해서 한다						
우리는 문제해결을 위해 이야기 한다						
우리는 돈이나 부에 대한 가치관이 비슷하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같이한다						
우리는 결혼생활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같이 미래를 계획한다						
우리는 서로가 하는 일에 협조한다						
우리는 말을 안해도 서로가 원하는 것을 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는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고 한다						
나는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가사일을 함께 분담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 하고 싶어하는 일을 도와준다						
우리는 부부 둘 만의 시간을 갖으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						
우리는 부부동반 모임에 함께 참석하려고 한다						
우리부부는 배우자가 원하는 애정표현을 하려고 한다						
우리는 부부관계 시 배우자의 기분을 잘 맞추어 준다						

	(가) 중요도 5 4 3 2 1	매우 그렇다 5	그렇다 4	보통이다 3	그렇지 않다 2	매우 그렇지 않다 1
나는 배우자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서로의 사회생활에 대해 인정한다						
우리는 서로의 대인관계를 이해하려고 한다						
우리는 서로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한다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자녀의 체벌에 대해 상의한다						
우리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비슷하다						
우리는 서로 자녀양육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